

# 교과서연구

제 42 호

2004. 6

차 례

- 발행인 / 한병천
- 기획편집위원장 / 허 강
- 위원 / 김만근, 노희방, 송정현,  
윤광원, 이춘식, 조성준

## 권두언

교과서 편찬의 발전 방향/이수일 .....4

## 특별 기획

### 제 7 차 교과서 평가-분야별

좋은 교과서 편찬을 위해 제도 개선 지속/노희방 .....8

집필·검정 과정상의 문제점 개선 시급/노명완 .....16

교과서 편집 디자인 체제 구축 및 기능 제고/조성준 .....22

교과서 교수·학습 체제 개편 등 긍정 평가/강정구 .....30

다양한 구성과 자료 제시 등 많이 달라진 교과서/이우진 ...38

## 현장 교육

일반계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곽종근 .....42

## 논 단

인정 도서의 제도 개선/이춘식 .....47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허와 실/박남화 .....52

## 나의 제언

교과서 변혁-급물살은 또다른 회오리 불러/주병오 .....57

e-learning 확대 및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모듈식

교재 체제 도입/김선태 .....62

## 연 재

오스트리아의 학교 제도와 교과서 제도/발터 텐서 .....65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편수 행정의 발자취

제 5차 검정 교과서 제도 개관/허 강	70
통일 교육의 전환, 북한 실체 인정/한명희	75
수학과 교육과정과 편수 행정/김진락	79
공업 교과서 편찬시 어려웠던 일들/장명진	86

## 단 상

제 7차 교육과정과 21 세기가 추구하는 인간형/권영출	92
교과서 편집자로 살아간다는 것/김택유	96

## 연구 보고서 소개

국정 도서 발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01
교과서 발행사의 운영 개선 방안 연구	102
교과용 도서 수시 보완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체제 구축 방안 연구	103

## 자 료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104
교과서 연구 단체 : IARTEM	106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109

● 연구재단 소식	110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12
● 원고 모집	113
● 연구재단 후원 기금 출연 안내	114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115

\* 표지 글씨 : 신두영

\* 표지 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 학생, 교육 내용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이 바로 교과서이다. 교과서를 충실히 가르치는 것이 곧 학교 교육이었고, 교과서의 내용을 잘 암기하고 통달하는 것이 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길이었다. 교과서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였고, 여러 가지 기능과 기술을 숙달시켰으며,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바람직한 태도 및 가치를 터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구축하게 되었고 지식과 정보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규범으로서 군림할 수 있었다.



## 교과서 편찬의 발전 방향

■ 글 / 이수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그러나 시대의 발전과 변화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내용을 많이 외우도록 힘쓰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비판력, 판단력 등 고등 정신 기능을 가지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힘쓰고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의 지향점이 변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교과서의 위상도 변하였다. 종래의 교과서가 그 자체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목적물이었다면 지금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지식 기반 사회와 함께 첨단 교육 자료가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해도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과서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에 따라

**종래의 교과서가 그 자체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목적물이었다면 지금의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지식 기반 사회와 함께 첨단 교육 자료가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해도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 교육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교과서 편찬 제도, 내용의 전개 방식, 외형 체제 등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고, 이들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70년대 중반 이후 교과서 체제 개선과 내용 혁신을 위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과서의 내용면이나 체제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는 여전히 교과서 기능의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서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컴퓨터 및 각종 통신 체계가 발달하여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급속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지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 불변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자 하거나 가장 최신의 것으로 끊임없이 그 내용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정보를 주체적으로 찾고, 해석하며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또, 컴퓨터와 각종 통신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학습 자료와 비교할 때, 인쇄된 책자 형식의 교과서가 나뉠대로 차별성을 가지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

습자의 구성적 작업에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꾸며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최근의 교육 이론과 인식론의 전환이다. 종전의 지배적인 관점이었던 객관주의 인식론의 허점을 논박하면서 제안되어 온 대안적인 관점에서는 한결같이 인식의 과정에서 인식 주체자의 역할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최근 구성주의 교육 이론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 과정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체험과 참여를 전제로 학습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으며, 학습자의 내부에서 비롯되고 변화되어 가는 목표 의식을 강조하여 학습자의 주체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그 능력을 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최근의 변화된 교육 이론 및 인식론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폭증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서는 있는 그대로 내면화하기를 요구하는 최종적인 산물의 형태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하고 안내

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 갈등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연계를 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이고 추상적인 자료의 제시를 지양하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학습자의 문제 의식과 시각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과서 내용 구성의 방식뿐만 아니라 교과서 발행 제도면에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 제도의 주축은 국정제와 검정제이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발행하는 제도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 위탁하여 개발되고 있다.

검정제는 저작자가 개발한 교과서를 국가가 검정을 통하여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정 교과서는 대부분의 초등 학교 교과서, 중등의 국어·도덕·국사 교과서,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 대부분의 전문 교과 교과서 등이다. 국정제는 국가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의 이념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고, 생산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발행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근래의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국정제가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이루는 데 나름대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는 보다 다양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제가 축소되고 검정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일부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과서의 저작이나 사용에 국가가 관여하지는 않고 교육과정에 의거해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한다는 제약만 받는 자유 발행제의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검정제를 확대함에 있어서 적용 시기 또는 적용 교과서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겠고, 한편으로는 검정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검정제는 교육 내용의 관리와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의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검정제 도입의 주된 목적이 다양한 방법과 의견을 수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검정 교과서 내용과 관련하여 입장 차이에서 표출된 상반된 주장을 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교과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유일한 학습 자료가 아니고 여러 자료 중의 핵심적인 자료로 전환이 되면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 교과서의 저작자나 발행사는 대부분 일단 검정에 합격이 되면 교과서의 질 관리에 소홀하게 된다.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는 대개 차기 교과서가 개편될 때까지 사용되는데 근래와 같이 사회가 급변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간혹 검정시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검정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면 저작자나 발행사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책임을 지고 조

검정제를 확대함에 있어서 적용 시기 또는 적용 교과서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겠고, 한편으로는 검정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검정제는 교육 내용의 관리와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의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치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검정 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된 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수정·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질 관리에 대한 장치가 미흡하므로 검정제 확대와 함께 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위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금과옥조형에서 학습 자료 중의 하나로 변하였으나,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역할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할 수 있으며, 교과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도 여전히 높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연계하여 교과서에 대한 조사·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교과서 편찬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좋은 교과서 편찬을 위해 제도 개선 지속

■ 글 / 노희방(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학** 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sup>1)</sup>를 사용하도록 정해졌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교재인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용 도서 편찬 관련 제도나 편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발행 제도와 그에 따른 교과서의 종류에 대해서는 본 연구지를 통해서 이미 잘 소개되었기<sup>2)</sup>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과용 도서 편찬 과정, 특히, 향후 발행 제도의 주축이 되는 검정 도서 편찬 절차와 검정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 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 방향

예전에는 교과서를 성전(聖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리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교과서상을

①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주된 자료, ②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③ 지식과 함께 기능·태도도 함양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의 배양을 강조하는 교과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과서의 성격 규명은 ‘21 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교과서관의 정립과 함께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개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①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교과용 도서 편찬, ②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의 편찬, ③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편찬, ④ 연구·개발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궁극적으로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 편찬을 기대함에 있었다.

## 2. 교과용 도서 편찬 과정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과정에서도 교육과정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교과서의 편찬 방향이 논의되지만, 실질적으로 교과서의 편찬은 교육과정 고시 이후부터 시작된다.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이어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된다. 이 기본 계획에는 교과용 도

서 개발 기본 방향과 방침, 교과서의 종류, 개발 기간 및 적용 시기 등이 포함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되는 총 교과용 도서는 908 종으로서 이 중 교과서가 656 종, 지도서가 252 종이다. 교과서와 지도서 외에도 국어, 외국어, 음악 교과를 위한 CD-ROM, 녹음 테이프 등 보완 자료도 61 종이 개발되었다.

〔표 1〕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수

(단위 : 종)

교과용 도서 학교급		계	교과서	지도서
유치원		12		12
초등 학교		212 (28)	130 (4)	82 (24)
중학교		111 (7)	56 (7)	55
고등 학교	보통 교과	148	81	67
	전문 교과	346 (26)	346 (26)	
	소 계	494 (26)	427 (26)	67
특수 학교		79	43	36
총 계		908 (61)	656 (37)	252 (24)

※ ( ) 안은 보완 교재 수이며, 교과서나 지도서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인정 도서는 제외됨.

기본 계획에 명시된 각 교과서를 국정으로 개발할 것인가 검정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

한 구분이 고시가 되면, 국·검정 도서는 각 단계마다 세부 계획에 따라 편찬이 진행된다.



[표2] 국정 도서 편찬 과정

단 계	과 정	소요 시간
계획·위탁 (교육인적자원부)	(1) 교육과정 고시 (2)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 (3) 편찬 방향·지침 확정 (4) 연구·개발 기관 선정, 위탁 (5) 심의 위원 선정, 위촉	(3 개월)
연구·집필 (위탁 기관)	(6) 체제·구조 개선 기초 연구 (7) 집필 세목 작성, 심의 (8) 원고 집필 (9) 사진, 삽화 제작 (10) 협의, 수정·보완	(8 개월)
심의·수정 (교육인적자원부, 위탁 기관)	(11) 원고본 심의, 수정 보완 (12) 개고본 심의, 조판 의뢰 (13) 현장 검토(실험) (14) 실험본 심의, 수정·보완 (15) 결재본 접수, 결재	(11 개월)
생산·공급 (발행사, 검정협회)	(16) 생산 지시 (17) 인쇄, 제본, 발행 (18) 공급, 수령	(2 개월)

[표3]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도서 편찬 절차<sup>3)</sup>

편찬 절차	주관 부서
제7차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고시(1997. 12. 30.)	교육부
초·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1998. 3. 27.)	교육부
중·고등 학교 교과용 도서 1종 및 2종 구분 고시(1998. 12. 12.)	교육부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1998. 12. 31.)	교육부
집필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제시(1999. 1., 1999. 8.)	교육부
집필, 편집, 검토, 수정 검정 출원 예정자 등록(1999. 1.~2000. 1.)	저작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종 도서 심사본 접수 및 심의 실시(2000. 1.~2000. 9.)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격 도서 발표(2000. 9. 20.)	교육부
전시본 교과서 생산 및 발송(2000. 10.)	발행사, 한국2종교과서협회
교과서 선정 및 주문(2000. 11.)	전국의 중학교
생산, 공급(2000. 12.~2001. 1.)	한국2종교과서협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교과서 및  
다른 교과서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교과서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창성 영역을 신설하였다.**

교과서를 집필함에 있어 1차적인 준거는 교육과정 총론의 기본 방향과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이며, 2차적인 준거는 집필상의 유의점이다.<sup>4)</sup> 집필상의 유의점에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방향,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모든 교과서에 적용되는 공통 유의 사항과 교과별 유의 사항 및 교과용 도서 외형 체제가 제시되어 있다. 공통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의 준수,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 학습자 중심의 목표 진술, 교과서 및 지도서의 체제 등이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사항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준별 교과서 개발과 저작권 관련 법규 제정에 따른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교과별 유의 사항에는 교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단원의 구성 체제, 내용의 수준과 범위 등이 있다. 또한 외형 체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획기적인 변모를 유도하였다.<sup>5)</sup>

검정 도서의 저작자와 발행사는 검정 기준도 유의하여 집필을 하여야 한다. 검정 기준<sup>6)</sup>은 공통 기준과 도서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통 기준은 모든 교과용 도서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각 도서별로는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표현·

표기, 편집 및 외형 체제, 독창성의 6개 심사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 교과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사 관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교과서 및 다른 교과서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교과서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창성 영역을 신설하였다.

### 3. 검정 도서 심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도서 심의는 교육과정의 적용이 현장에 연차적으로 시행됨을 감안하여 3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다.<sup>7)</sup> 검정 도서 심의는 기초 조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지며, 교과서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루어진다. 기초 조사에서는 연구 위원에 의하여 검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및 외국어에 대한 어휘 검색 등을 조사하는 작업이 실시된다. 본 심사는 검정 심의 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며<sup>8)</sup>,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차 심사에서는 검정 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며,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 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이행 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2차 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교과서에 한해서 지도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지도서 심사도 교과서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지도서까지 적격으로 판정된 교과서만이 검정 합격 도서가 되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sup>9)</sup>.

제 6 차 고등 학교 검정부터 합격 책 수 제한이 폐지되어 제 7 차 교육과정의 검정 합격 책은 교과서마다 상이하다. 중학교 검정 첫째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총 13 개 교과목에 대해 308 책이 검정 신청을 하여 98 책이 합격되어 평균 32 %의 합격률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완성도가 낮은 교과서가 무분

별하게 검정에 신청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 4.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의 특성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2 종 교과서는 검정 제도 측면, 교과서 외형 체제나 편집 체제면,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표 4] 2000 년도에 실시된 중학교 검정 교과서 합격률

교과서	검정 신청 책 수	합격 책 수	합격률 (%)
사회 1	21	6	28.6
사회과 부도	12	6	50.0
수학 7-가	35	13	37.1
수학 7-나	35	13	37.1
과학 1	24	7	29.2
기술·가정 1	19	10	52.6
체육 1	19	6	31.6
음악 1	31	5	16.1
미술 1	18	6	33.3
영어 1	36	13	36.1
한문 1	38	7	18.4
컴퓨터	20	3	15.0
환 경	4	3	75.0
계	308	98	31.8

※ 재검정 도서 수는 포함하지 않음.

특성이 있다.

검정 제도면을 살펴보면 보다 많은 교과서가 검정으로 개발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국사, 컴퓨터, 환경이 국정 교과서이었는데, 제 7차에는 이 중에서 사회, 컴퓨터, 환경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교과서 발행을 점점 국정에서 검정으로 확대한다는 교과서 발행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교과서마다 8책으로 합격본을 정하였던 규정이 폐지되고 교과서로서 적정 수준을 갖춘 교과서를 검정에 합격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교과서마다 다른 책 수가 합격되었다. 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

히기 위하여 집필자 실명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교과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단원별로 집필자를 제시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또다른 특징은 현장 교원이 대거 집필에 참여한 것이다. 예전에는 교과서 집필이 대학 교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제 7차에서는 중등 교원 저작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중등 교원의 비율은 제 6차의 평균 32%에서 47%로 증가하여 대학교 교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책당 평균 저작자 수도 4.8명에서 6.8명으로 늘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하였고, 제 6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저작자가

〔표5〕 중학교 검정 도서 저작자 구성비

교과서	제 6차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			
	중등 교원 (%)	대학 교원 (%)	기타 (%)	책당 평균 저작자 수(명)	중등 교원 (%)	대학 교원 (%)	기타 (%)	책당 평균 저작자 수(명)
사회 1	국정 교과서				56	38	6	11.3
사회과 부도	10	67	22	7.3	18	62	20	8.3
수학 7	5	85	10	2.5	48	49	3	5.2
과학 1	49	47	4	10.6	68	31	1	12.0
기술·가정 <sup>a1</sup>	35	61	4	6.4	59	38	3	7.9
체육 1	11	89	0	3.5	9	83	9	3.8
음악 1	47	35	18	2.1	47	47	6	3.4
미술 <sup>b1</sup>	37	33	30	2.1	60	27	13	5.0
영어 1	10	86	3	3.6	33	57	10	5.5
한문 1	50	36	14	2.8	45	32	23	3.1
컴퓨터	국정 교과서				40	40	20	3.3
환 경	국정 교과서				20	67	13	5.0
계	32	60	8	4.8	47	45	8	6.3

a : 제 6차 교육과정은 기술·산업과 가정 교과서를 합산한 것임.

b : 제 6차 교육과정은 미술과 서예 교과서를 합산한 것임.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교과서가 어렵고,  
학습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가 과거 이론 중심의 지식 전달 형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 명인 교과서가 상당수 있었으나 제 7 차 교과서는 1 명이 저작자인 교과서가 1 책으로 나타났다. 중등 교원의 집필 참여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가 많이 다루어졌고, 내용 수준도 학생들에게 맞게 조절되었다고 본다.

## 5. 맺는 말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예전의 교과서에 비해 내용 구성, 편집 체제 및 외형 체제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장 교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교과서가 어렵고, 학습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가 과거 이론 중심의 지식 전달 형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과서를 통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사례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 편찬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좀더 질이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3

- 1)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며, 검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이고,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이다. 2002년 6월 25일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검정 도서는 2종 도서 혹은 2종 교과용 도서로, 국정 도서는 1종 도서 혹은 1종 교과용 도서로 불렸다.
- 2) 김만근, '교과서 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 『교과서연구』 제 41 호, pp. 9~1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12.
- 3) 검정 도서의 편찬 시작부터 현장에 공급되기까지는 보통 3년 정도가 소요된다. '한국 2종교과서협회'는 당시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 4) 제 7 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국정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은 3차에 걸쳐 발간된 국정 도서 편찬 추진 계획에 수록되어 있으며, 검정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은 중학교용과 고등 학교용으로 발간되었다. 집필상의 유의점은 국정의 경우에는 집필진과 연구진 협의회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검정의 경우는 검정 교과서 발행 관계자와 저작자에게 집필자 집필상의 유의점을 안내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교육부, 제 7 차 교육과정에 의한 1998년도 초등학교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1998. 4.)
  - 교육부, 제 7 차 중·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2000년도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2000. 5. 13.)
  - 교육인적자원부, 제 7 차 중·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2001년도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2001. 2. 15.)
  - 교육부, 제 7 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중학교, 1999. 1.)
  - 교육부,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고등 학교, 1999. 5.)
- 5) 제 7 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예전의 교과서에 비해 외형 체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우선 책 퍼짐이 유연하지 않고 책장이 떨어져서 사용하기 불편하였던 국판(가로 148 mm, 세로 210 mm)의 교과서가 없어지

고, 4×6 배판(가로 187 mm, 세로 257 mm)이나 국배판(가로 210 mm, 세로 296 mm)으로 책의 크기가 커졌다. 교과서의 본문 지질은 인쇄 효과가 떨어지는 서적지에서 고급 서적지로 개선되었고, 교과서의 색도도 대부분 4색을 사용하여 정보가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하였다. 또, 교과서의 통일된 편집 체제를 벗어나 융통성 있게 지면을 구성하였으며, 사진·삽화의 선명도가 높아졌고 다양한 활자체를 사용하여 심미도와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고급 잡지에 버금가는 편집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 6) 검정 도서 검정 기준은 검정 일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공표되었다. 검정 도서 발행사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하여 안내하거나, 공청회를 거쳐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교육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도서 검정 기준(1999. 8.)
  - 교육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종 도서 검정 기준(2000. 6.) : 고등학교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일반 선택 과목, 전문 교과 교과용 도서
  - 교육인적자원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종 도서 검정 기준(2001. 6.) :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
- 7) 각 차시별 검정 도서 신청 기간과 검정 도서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검정 신청 도서를 접수한 후, 1달 이내에 검정이 실시되었으며 지도서 검정이 완료

될 때까지 8~9 개월이 소요되었다.

- 중학교 1학년 : 2000. 1. 24.~31.
  -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기본 교과 및 일반 선택 과목, 전문 교과 : 2000. 12. 4.~11.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 : 2001. 12. 3.~10.
- 8) 검정 연구 위원과 심의 위원은 시도 교육청과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촉되었다. 연구 위원은 대부분 중등 교원으로 구성되었다. 심의 위원은 중등 및 대학 교원, 기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제 7차 교과용 도서 검정 심의 위원은 중등 교원이 과반수이었다. 기초 조사와 검정 심의시 국어의 표현·표기에 대하여 국립국어연구원의 자문을 받았고, 외국어 교과에서는 원어민을 참여시켰다.
  - 9) 검정 신청 도서의 적부 및 합격 판정은 전적으로 각 도서별 검정 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정심의회에서 이루어진다. 도서별 검정심의회는 신청 도서 수와 도서별 특성에 따라 5~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되어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 과정에서 개개 위원은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판결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외국어 교과 검정에 참여하는 원어민은 외국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집필·검정 과정상의 문제점 개선 시급

■ 글 / 노명완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교**과서는 중요하다. 교과서는 학교 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이다. 당위론적으로 볼 때, 교과서에는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이 들어 있고, 교육과정에 진술되어 있는 각 교과 교육 목표가 들어 있다.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교과서에는 각 학년의 영역별 지도 목표가 들어 있고, 이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자료화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구현 자료가 교과서이기에 모든 각급 학교의 교사들은 교과서를 주된 교수 자료로 삼아 가르친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또한 교과서를 주된 학습 자료로 삼아 배운다. 교육 일반으로 강조하는 민주 시민 의식과 가치관, 각 교과의 지도 내용인 지식과 기능, 그리고 창의성이나 비판성과 같은 고등 수준의 사고력 교육이 모두 교과서를 통해 지도되고 학습된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음향이나 영상을 활용하는 현대 교육 매체들이 급격하게 등장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자료로서 인쇄 자료인 교과서를 능가하는 교수·학습 자료는 없다. 그래서

교과서는 중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만들어 내는 원천적인 힘이 교사에게서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보다는, ‘교육의 질은 교과서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고 해야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교육 또는 수업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은 개별적이지만, 교과서의 영향력은 그 교과서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모든 수업에 다 미친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영향력보다는 교과서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수업 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과서를 보고 그 내용과 그 방식에 따라 가르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교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가 선택한 교과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중요하다.



교사의 수업 내용과 방법이 교과서에 크게 의존되어 있다는 점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일상의 경험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다. 교사의 교과서 의존 수업은 수학이나 과학 교과와 같이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확정되어 있는 교과에서는 물론, 자료의 선택이 매우 자유스럽다는 국어 교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읽기’ 수업을 분석한 미국의 한 수업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수업에서 하고 있는 지도 내용과 방법의 75~90%가 이들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재-예를 들면, 이른바 ‘기초 읽기 프로그램(basal reading program)’-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보고는 없지만, 우리 나라의 ‘국어’ 수업도 대부분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교과서는 국어 교과를 비롯하여 모든 교과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는 중요하다.

## 2. 교과서의 발행 제도

우리 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 단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전자에 의해 개발되는 교과서를 우리는 ‘국정 도서’(전에는 ‘1종 교과서’라 했음.)라 부르고, 후자에 의해 개발되는 교과서를 ‘검정 도서’(전에는 ‘2종 교과서’라 했음.)라 부른다. 국정 도서의 개발은 처음에는 정부(주로 현 교육인적자원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문교부’)에서 직접 담당하였다가 나중에는 ‘연구 개발 모형’을 채택하여 특정 연구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과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연구 기관이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의 개발과 발행을 정부에서 주도하는가 또는 민간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하는가 하는 발행 제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쟁점들과 연관되어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사회의 이데올로기 문제, 교과서 개발 능력의 문제, 교과별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이론·지식·개념의 선정 문제, 가치관의 문제, 출판 이익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여러 쟁점들을 고려하면서, 정부에서는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주장하고, 민간 단체나 개인들은 오히려 민간 단체나 개인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서 개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에 의한 자유 발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아래와 같은 논리를 제기한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면,

- 교과서 발행 과정에 정부가 관여하고 통제하게 되며,
- 그래서 국가 이념이나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고,
- 교수·학습 내용이 획일화되어 다양성을 놓치기 쉽고,
- 대형 출판사의 독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협화가 발생하고,
- 부교재의 개발, 보급에 따른 과다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교과서 개발은 민간 단체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교과서를 발행하는 정



우리 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에서 점차 검정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고등 학교 교과서 발행권은 국어와 국민 윤리 등의 특수 교과 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서 개발이 이미 민간 단체나 개인으로 넘어간 실정이다.

부나 특정 연구 기관에서는 정부 주도의 국정 도서 개발 제도의 좋은 점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즉,

- 다수의 전문 인력 동원이 가능하고,
- 이 인력을 활용하여 연구, 협의, 검토 과정을 철저히 가질 수 있으며,
- 국가 정책을 신속히 반영 교육하고,
- 학습 내용을 객관적 일반적 관점에서 엄선할 수 있고,
- 학설의 쟁점을 공정한 입장에서 수렴하고,
- 전문 학술 용어나 개념의 통일이 쉽고,
- 입시 정책의 혼란을 방지하고,
- 학교의 평준화 및 학력 평가가 용이하고,
- 국력 낭비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교과서는 정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실정을 살펴볼 때, 우리 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에서 점차 검정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고등 학교 교과서 발행권은 국어와 국민 윤리 등의 특수 교과 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서 개발이 이미 민간 단체나 개인으로 넘어간 실정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직 국가가 모두 관장하고 있다.

### 3.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새로이 편찬할 때가 되면, 정부에서는 ‘집필상의 유의점’이라는 이름으로 된 교과서 편찬 지침을 내놓는다. 여기서는 이 지침의 내용 중에서 편찬 방향과 집필상의 유의점(‘공통 사항’과 ‘교과별 사항’)의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가. 편찬 방향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과서는 크게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로 구분된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에서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편찬하고, 검정 교과서는 민간 단체나 개인이 개발·편찬한다. 국정 교과서는 대체로 한 기관에서 책임지고 편찬하기 때문에 교과별로 한 종류의 교과서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검정 교과서는 민간 단체나 개인이 개발하여 출원한 여러 교과서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그래서 검정 교과서는 한 교과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선정된다.

이번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지침에서는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개발

이 기본 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① 학생의 교과서 개발

교과서는 교사용이라기보다는 학생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교과서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편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의 창의성 신장

교과서 학습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위의 세 가지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으로 다음 세 가지를 더욱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1)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서 편찬

제7차 교과서는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체제에 적합하게 개발·편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를 국가에서 제정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료로 개발할 것, 둘째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자료로 개발할 것, 셋째 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서로 편찬할 것 등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요구는 교과에 따라 단계형(예 : 수학, 영어) 또는 심화·보충형(예 : 국어, 사회, 과학)으로 구분되고 있다.

(2)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편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편찬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세분된다. 첫째는 창의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 둘째는 학교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 개선에 기여하는 교과서, 셋째는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고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이다.

(3) 연구 개발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과서

제7차 교과서 편찬 지침에서는 ‘연구 개발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과서’를 편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는 기초 연구의 충실, ‘1 교과 다 교과서’ 체제 도입(사실 이 ‘1 교과 다 교과서’ 제도는 이전에도 채택하였던 정책이다.), 현장 교사의 참여 권장, 그리고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서 편찬을 요구하고 있다.

나. 집필상의 유의점

(1) 공통 사항

제7차 교과서 편찬 지침에서 안내하고 있는 ‘집필상의 유의점’은 아래와 같다.

- 관련 법령의 준수
- 교육과정의 구현
-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
- 내용의 범위와 수준
- 내용의 선정 및 조직
- 학습자 중심의 목표 진술
- 수준별 교과서 개발
- 통합 교과의 교과서 개발
- 표현, 표기의 정확성
- 교과서 및 지도서의 체제
-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 범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

## (2) 교과별 사항

‘집필상의 유의점’에서는 교과별로 편찬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아래의 항목에 따르고 있다.

- 내용의 선정과 조직
- 단원의 구성 체제
- 내용의 수준과 범위
- 진술 방법 및 지면 구성

교과별 편찬 지침은 교과 내에 있는 개별 과목별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별 사항’은 실제적으로는 ‘과목별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 내 과목별 편찬 지침이 과목에 상관 없이 대부분 흡사하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 내에 있는 검정 교과서 ‘국어 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학(상·하)’의 지침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심지어는 지침의 길이(쪽 수)까지도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 4. 저작자 입장에서 본 교과서 편찬의 문제점과 개선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서 편찬에 대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해 본다.

### 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서 내용에 대하여

교과서 편찬의 기본 내용과 골격은 교육과정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서는 그 내용과 진술이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과서 편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진술이 대부분 간단한 한문장 정도로 되어 있고(예 : 국어과 교육과정

에서의 내용 진술), 이 내용에 대한 해설도 개념 풀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편찬을 위해서도 현재의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학년별 내용과 자료, 그리고 지도 방법과 평가상의 구체적 유의점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 나. 교과서 편찬 지침인 ‘집필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집필상의 유의점’은 집필자에게는 집필상의 유의점이 되며, 출원된 교과서의 심사 위원들에서는 심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안내이다. 그런데 이 집필상의 유의점이 실제적으로는 집필상 그리고 심사상의 지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술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 편찬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방향’(‘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질 높은 교과서 개발’)의 내용도, 그리고 이 기본 방향에 대한 부연 설명의 내용도 모두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안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여러 교과에 공통되는 집필상의 유의점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교과별 집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과 공통의 사항으로 언급된 ‘교육과정의 구현’,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 ‘내용의 범위와 수준’,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등은 그 진술 내용과 수준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항들은 ‘교과별 사항’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서의 안내도 실제 집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즉시 피드백되어 수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교과서 편찬 정책에서는 이런 현장 사용 후의 미흡점 수정에 대한 제도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 다. 출원 교과서의 심사에 대하여

출원된 교과서를 심사할 심사 위원은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과서 필자들은 자기가 집필한 교과서를 심사할 심사 위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해당 교과나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한다. 그리고 심사를 제대로 할지 의심스러워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각 교과나 과목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교과서를 집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들리는 얘기가, “전문가가 집필하고 비전문가가 심사한다.”라는 말이 나돌기도 한다.

교과서를 출원한 대부분의 저작자는, 심사 위원으로부터 출원한 교과서에 대한 심사 결과와 함께 수정 통지서를 받는다. 그런데 심사 위원들이 지적해 준 수정 요구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심사에서는 교과서 편찬의 핵심이 되는 내용보다는 그렇지 않은 내용이 더 많이 심사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의 구현, 교육 내용의 적정화, 내용의 범위와 수준, 내용 선정과 조직, 학습자 중심 등에 대한 지적은 별로 없고, 교육의 중립성 유지(가령 정치, 종교, 남녀, 직업, 계층 등에 편견이 있는지 등)와 표현 및 표기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심사의 타당성과 심사 위원들의 교과적 전문성이 크게 의심받기도 한다.

#### 라. 합격된 교과서의 후속 수정에 대하여

교과서는 아무리 철저히 편찬한다고 해도 여러 점에서 미흡할 수 있다. 그래서 교과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즉시 피드백되어 수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교과서 편찬 정책에서는 이런 현장 사용 후의 미흡점 수정에 대한 제도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수정이 출판사에 전적으로 의뢰되어 있고, 그런 까닭에 한 번 합격한 교과서에 대한 수정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많이 고치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현이며 교실 수업의 핵심 자료이다. 교사는 교과서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교과서로 배운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는 일련의 교육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 집필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과 진술의 추상성, 교과서 집필에 대한 안내 지침의 모호성, 심사 위원들의 전문성과 심사 내용의 타당성, 합격된 교과서의 지속적 수정 등 여러 점에서 미흡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더 좋은 교과서 편찬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라 생각한다. 21

# 교과서 편집 디자인 체제 구축 및 기능 제고

■ 글 / 조성준(아트 미디어 편집 주간)



## 1. 시작 하는 말

2002년까지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편찬이 모두 종료되었고, 2003년부터는 초·중·고등 학교 전학년이 새 교과서로 교수·학습을 하고 있어 비로소 교과서에 대한 적절한 평가 시점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얻으려면 편집 디자인에 대한 교과서 편찬 과정상의 문제점, 교과서 편집 디자인 실태 조사, 편집 디자인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와 평가, 관련 있는 여러 전문가에 의한 질 및 효용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장기간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편집 디자인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중·고등 학교용 검정 교과서 심사 제도 및 편찬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교과서 편집 디자인에 관한 규정의 의의

‘교과서 편집 디자인에 대한 규정(規定)’은 교과서 편찬 제도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국가적 차원의 형식화되고 명문화된 규약 또는 기준으로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을 하기에 앞서 교과서 편집 디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교과서 편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교과서 편찬관의 변화는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집필 지침인 ‘집필상의 유의점’에 잘 드러나 있다.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규정을 제 6 차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편집 디자인 부문에서 몇 가지 발전적인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편집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교과서 편찬 규정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중요성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식하고 교과서 적용을 유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과서 외적 체제 기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의 활용이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의 적용이 용이한 판형의 확대, 사진·삽화·도표의 질 및 가독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질과 색도의 변화, 활자 사용의 자율성 등은 교과서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구실을 하였다.

셋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편집자 및 디자이너가 자율적·탄력적·창의적으로 편집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지향하는 ‘편찬 방향’에 맞게 편집 디자인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로서 편집 디자인 부분에 대해 심사하였다는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외적 체제의 획일적 적용은 작게는 더욱 창의적이고 조형성 높은 편집 디자인의 저해 요인이, 크게는 다양한 교과서 편찬의 저해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차체에 교과서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교과서 외적 체제도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3. 교과서 편집 디자인 심사 기준의 개선점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집 디자인 심사 기준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일까? 또, 편집 디자인 항목의 평점은 전체 평점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심사 기준 및 항목 설정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요건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 가. 교과서 편집 디자인 심사 기준의 특징 및 개선점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본 심사 기준은 판형, 지질, 색도, 인쇄, 제책 등의 외형적 요소, 글꼴, 그림, 사진, 아이콘, 선·면 등의 재료적 요소, 디자인 설계 및 레이아웃의 행위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외형 체제에 대한 것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아예 심사를 위한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심사에서는 외형적 요소보다는 재료적 요소나 행위적 요소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료적 요소도 ‘교과 내용의 선정 및 표현’에 대한 심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편집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행위적 요소’, 즉 ‘배치’, ‘활용’, ‘구성’, ‘제시’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심사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심사위원의 개인적 지식, 정서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즉, ‘참신성·독창성’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평가의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집 디자인 부분을 모두 계량화하기는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량화한다거나,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을 때 참신하다거나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의 미흡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나. 편집 디자인 평점이 전체 평점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개선점

200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중학교 2학년 및 고등 학교 1학년용 교과서 검정위원을 대상으로 ‘심사 관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2종 교과용 도서의 질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pp. 21~22) 편집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편집 디자인의 개념과 기법이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교과서 편찬자나 평가자·수용자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②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개인차가 클 수 있으며, ③ 특히, 심사 위원이 기존의 교과서관에 크게 경도되어 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를 잘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1%'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 디자인의 '행위적 요소'만 놓고 본다면 그 비중이 작으나, 편집 디자인의 영역이 재료적 요소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다른 평가 항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작지 않다. 예컨대, 편집 디자인 기법을 잘 활용한 평가, 표현, 구성 등을 함으로써 독창성과 참신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 연구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삽화 자료가 풍부하다거나(49.4%), 학습 자료가 많아진 점(18.7%) 등이 '교과서가 개선된 점'으로 높게 평가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재료 요소에 대한 심사 기준 항목을 보다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편집 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더욱 발전된 편집 디자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4. 현행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개선 방안 모색

편집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출판사 외적 요인의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사 내적 요인의 개선이다. 전자는 출판사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문의 연구를 외부에서 수행하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거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후자는 출판사에서 수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다.

##### 가. 교과서 출판사 외적 환경의 개선 방안 모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편집 디자인 수준은 교과서마다 편차가 크다. 비교적 편집 디자인이 우수한 교과서도 있지만, 여전히 제6차 교과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과서도 다수 있다.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교과서도 상대 평가를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절대 평가를 했을 때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출판사에 편집 디자인에 관한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점, 또 편집 디자인에 대한 출판사 또는 편집자의 수용 태도의 차이점, 편집 디자인 관련 인적 자원의 부족, 교과서 편찬 기간·비용·인적 구성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교과서 편집 디자인 연구소 설립 : 교과서 출판사 자율적으로는 평소에 교과서 편집 디자인 연구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은 교과서 관련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에 편집 디자인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

**재료 요소에 대한 심사 기준 항목을  
보다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편집 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더욱 발전된 편집 디자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법이 있다.

둘째, 연구 의뢰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편집 디자인 전공 교수가 있는 대학이나 시각 디자인 협회,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 회사에 연구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행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대안 또는 시범 교과서를 편집 디자인하게 하거나 편집 디자인 심사에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전시, 홍보, 교육 등을 통해 교과서 편찬 관련자 모두가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시범 교과서 경진 대회 개최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모든 출판사를 대상으로 시범 교과서 경진 대회를 열고,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만든 출판사·편집자·디자이너 등을 시상하며, 그 성과물을 모든 교과서 발행사·편집자·디자이너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외적 환경의 마련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출판사는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검정교과서협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고, 또 전문 인력이 자체 기관 내에 없기 때문이다.

**나. 출판사 내적 요인의 개선 방안 모색**

출판사의 내적 요인의 개선이란, 출판사 내부의 교과서 편집 디자인과 관련된 제 요인, 즉 편집자, 디자이너, 저작자, 일러스트레이터, 포토그래퍼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1) 바람직한 교과서 편찬 팀의 구성**

우수한 교과서 편찬 팀의 구성 및 운용은 수용성·가독성·조형성 높은 교과서 편찬의 절대 요건이다. 인적 구성의 한 가지 방법으로 크게 [종합 디렉터(total director)] → [에디팅디렉터·아트디렉터] → [편집자·디자이너] → [포토그래퍼·일러스트레이터·디자이너]의 세 부문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한 팀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다.

이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종합 디렉터는 각종 사진, 그림 등의 전문가, 편집자, 디자이너, 저작자 등을 조정 또는 지휘할 수 있는 조정력과 높은 수준의 편집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되는 각종 공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분석력과 여러 팀의 효율적인 협조 체제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인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종합 디렉터는 에디팅디렉터 및 아트디렉터와 함께 편집 디자인의 방향 설정, 시각 요



소 제작의 원칙 수립, 시각 자료 게재 관련 원고 집필 방법 결정, 지면 구성 원칙 수립, 포토그래퍼·일러스트레이터의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종합 디렉터 하위의 에디팅디렉터는 편집 실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과 내용과 편집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디자인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력과 성실함, 치밀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트디렉터는 편집 디자인의 방침을 정하고 서책 전반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되 유기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원만한 인품이 요구된다.

에디팅디렉터 하위의 각각의 편집자는 에디팅디렉터의 주도 아래 각각의 저자를 컨트롤하고, 원고 내용 검토를 하는 등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또, 포토그래퍼·일러스트레이터·디자이너로부터 받은 사진이나 일러스트 원고나 교정지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을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즉, 내용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아트디렉터 하위의 디자이너는 포토그래퍼·일러스트레이터·디자이너로부터 받은 사진이나 일러스트 원고나 교정지를 받아 시각성·조형성 등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 에디팅디렉터의 육성

에디팅디렉터(editing director)란 아트디렉터와 비교되는 용어로 ‘교과서 편집 전문가’를 뜻한다. 교과서 편집 전문가란 교과서를 연구하고 편집하는 사람으로서, 단순 편집에 머물지 않고 디렉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 곧

교과서 편찬 실무를 지휘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 대개 팀장급에 해당한다.

에디팅디렉터의 역할은, ① 아트디렉터와 함께 교과서 편찬에 관한 방향, 편찬 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동료 편집자에게 잘 전달하며, 그 방침·기준에 따라 교과서 편찬이 잘 되도록 이끌기, ② 저자 관리, 원고 관리, 원고의 질 및 집필 방법 제시 및 협의, 평가하기, ③ 디자인의 질, 방법 등을 평가하고 디자이너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④ 각종 시각 자료의 종류, 내용, 크기, 게재 방법, 색도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하기, ⑤ 일러스트레이터, 포토그래퍼를 잘 조정하여 질 높은 시각 자료를 제작, 평가, 개선을 도모하기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에디팅디렉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내적 요건으로 출판사에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교과서 전문 편집부 또는 연구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적어도 복수의 에디팅디렉터가 교과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곳에서 가독성·조형성 높은 교과서 편집 디자인은 물론 효과적인 교과서 편찬 방법 등에 대해 상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이들에게 교과서 출판 선진국에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선진 외국의 발전된 교과서 편찬 시스템, 편찬 방법, 편집 디자인, 인력 관리 등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교과서 출판사와 인적·물적, 정보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외적 요건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

**선진 외국의 발전된 교과서 편찬 시스템,  
편찬 방법, 편집 디자인, 인력 관리 등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할이 절대적이다. ① 출판사가 위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연구 개발비를 현재보다 대폭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또는 에디팅디렉터 육성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출판사에 지원하고, 그 지원 결과를 평가하며, 그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과서 출판사 및 편집자 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국내외 교육 연수 계획, 에디팅디렉터 자격 제도, 교과서 편집 디자인 경진 대회 개최 및 훌륭한 교과서 편집을 한 출판사 및 에디팅디렉터에 대한 시상 제도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3) 저작자의 집필 방법 개선

저작자에 따라 원고 집필 방법이 다르다. 편집 디자인이나 시각 자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원고를 집필하는 저작자가 있는 반면,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 없이 내용을 쏟아 내는 저작자도 있다. 즉, 텍스트 위주의 원고를 고집하는 것이다. 설령 시각 자료나 편집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도 교과서 게재 시각 자료를 보조 자료나 장식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자의 대부분이 편집 디자인에 대한 안

목이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개의 교과서 원고는, 첫째, 시각성·조형성 낮은 편집 디자인, 나아가 질 낮은 교과서의 원인이 되었고, 둘째, 원고량이 넘치는 요인이 됨으로써 ① 편찬 속도를 더디게 하거나, ② 편집자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거나, 시각 자료의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원고량이 적은 경우는 ① 과다한 여백의 문제로 인한 내용의 부족이나 책의 부실, ② 이상 크기의 시각 자료의 게재, 또는 시각 자료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 부담, ③ 추가 집필에 따른 편찬 속도 지연 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시각 자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교과서가 텍스트 위주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때로는 시각 자료가 학습 내용의 주요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원고 집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본다.

원고 집필을 위한 포맷(format) 또는 판면 ‘conti’를 작성한 후에 원고를 집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편집자는 저작자의 ‘conti’ 작성 이전에 한 면의 행수, 행장, 글자 크기 및 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주어야 한다. 저작자는 백지나 컴퓨터를 이용, 편집 디자인(시각성)을 고려하여 펼친 면 단위로 집필할 전체 페이지의 conti(또는 format)를 짜되 텍

스트의 양, 시각 자료의 크기, 위치 등을 대강 스케치 한 후, 1차로 에디팅디렉터 및 아트디렉터와 함께 검토한 다음에 본 집필에 들어가는 것이다. 1차 conti가 완성되면 저작자와 에디팅디렉터 및 아트디렉터는 협의회를 갖고 조형성·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각 요소의 내용(텍스트의 시각 자료화 등), 크기, 양, 위치 등을 조정한다.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conti 작업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지만, 결국은 적정량 원고의 집필, 내용 표현의 적절성 등으로 전체 원고 집필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편집자의 과중한 업무도 덜게 되며, 출판사의 비용 부담 요인도 감소된다. 결국 내용 선정·조직이 우수한 교과서, 조형성·가독성 높은 교과서, 시각 디자인이 우수한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는 것이다.

#### (4) 시각 자료 전문 제작자의 참여

‘시각 자료 전문 제작자’란 전문성이 아주 높은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그래퍼를 의미한다. 그 동안 각 출판사마다 교과서를 편찬할 때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그래퍼의 참여가 미흡하였다. 이들 전문가의 참여 여하에 따라 교과서 게재 시각 자료의 크기, 종류, 질 등의 차이가 크며, 이는 나아가 편집 디자인은 물론 교과서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 ●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교과서 출판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선정할 때에는, 대개 ① 그림값이 싸면서 양질일 것, ② 교과서 그림 제작 경험이 많을 것, ③ 편집자의 요구에 잘 부응하는 삽화가일 것, ④ 빨리 그릴 것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

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대개 ① 그림값이 높을 것, ② 결제가 잘 되는 큰 규모의 출판사일 것, ③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일러스트 제작 참여에 문제 제기가 없을 것, ④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것 등을 출판사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① 유사한 그림이 매 차수 교과서에 나오거나, ② 한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이 여러 출판사의 동일 과목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③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배경, 장치물, 색채 등이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④ 교과서 전체가 한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판사의 깊은 안목을 바탕으로 첫째, 전문적인 일러스트레이터를 교과서 그림 제작에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 제작자는 서양 회화 및 동양화를 전공한 대학 교수, 우수한 동화 그림 제작자,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밀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하다. 교과서 편찬에 이들이 참여할 때 수채화나 선화 위주의 교과서 그림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질 것이며, 그림 내용면에서도 시대에 맞는 그림, 나아가 교과서 내용 표현의 풍부함, 즉 그림의 기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 텍스트를 이 그림으로 대체할 때, 활자 내용보다도 교육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른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림 제작자를 저작자군에 포함시키며, 이들에게 다른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저작권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다만, 대학 교수와 같이 현직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전액 저작권료를 받게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그림값의 일부분을 출판사에서 부담하고 저작권료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 포토그래퍼의 경우

그 동안 교과서를 편찬할 때, 그림의 경우는 대개 출판사의 의뢰에 의해 제작되지만, 사진의 경우는 ① 출판사 내외의 전문 포토그래퍼에 의한 제작, ② 저작자 또는 편집자에 의한 제작, ③ 사진 대여 회사 또는 기관에서의 대여, ④ 각종 인쇄물에서의 수집 사용, ⑤ 인터넷 등 전파 매체에서 다운(down) 사용, ⑥ photo CD 구입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작, 수집하여 사용해 왔다.

이 가운데 현행 교과서에는 교과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①에 의한 사진이 다수 게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④, ⑤에 의한 사진은 대개 해상도 및 내용 표현의 정확도가 낮고, 작은 크기로 게재되는 단점이 있으나, 비용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①, ③, ⑥에 의한 사진은 이와 상반되며, 사진 크기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교과서에 게재되는 사진은 ①, ③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먼저 ‘① 출판사 내외의 전문 포토그래퍼에 의한 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전문 포토그래퍼란, ‘사진을 웬만큼 찍는 사람’이 아니라, 실사 경험이 풍부한 사진 전공자이거나 또는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실사에 대해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사람

을 뜻한다. 이러한 사람을 출판사 내에 상근시킬 수 있는 교과서 출판사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일러스트레이터 문제의 해결 방안과 같아 생각한다.

#### 5. 맺는 말

이상에서 편집 디자인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검정 교과서 편찬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개선 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편집 디자인이 우수한 교과서는 편집자나 디자이너만의 몫이 아니다. 질 높은 교과서가 편찬, 사용되어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①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도적·정책적 뒷받침, ② 출판 경영자의 질 높은 교과서 편찬 의지를 바탕으로 한 투자와 다양한 시스템 마련, ③ 신념과 안목 있는 종합 디렉터(total director)·에디팅디렉터·아트디렉터의 참여 및 노력, ④ 실력 있는 편집자·디자이너의 노력, ⑤ 저작자의 인식 전환의 의지, ⑥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및 포토그래퍼의 참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여섯 가지는 마치 인체의 필수 영양소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할 때 튼실한 몸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하나라도 없거나 부족하면 질 높은 교과서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부족함의 결과는 그 동안 교과서 편찬 과정이나 교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여섯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라야 진정 우리 나라의 교과서가 편집 디자인은 물론 모든 면에서 한 차원 이상 발전할 것이다. 23

# 교과서 교수·학습 체제 개편 등 긍정 평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 글 / 강정구 (경인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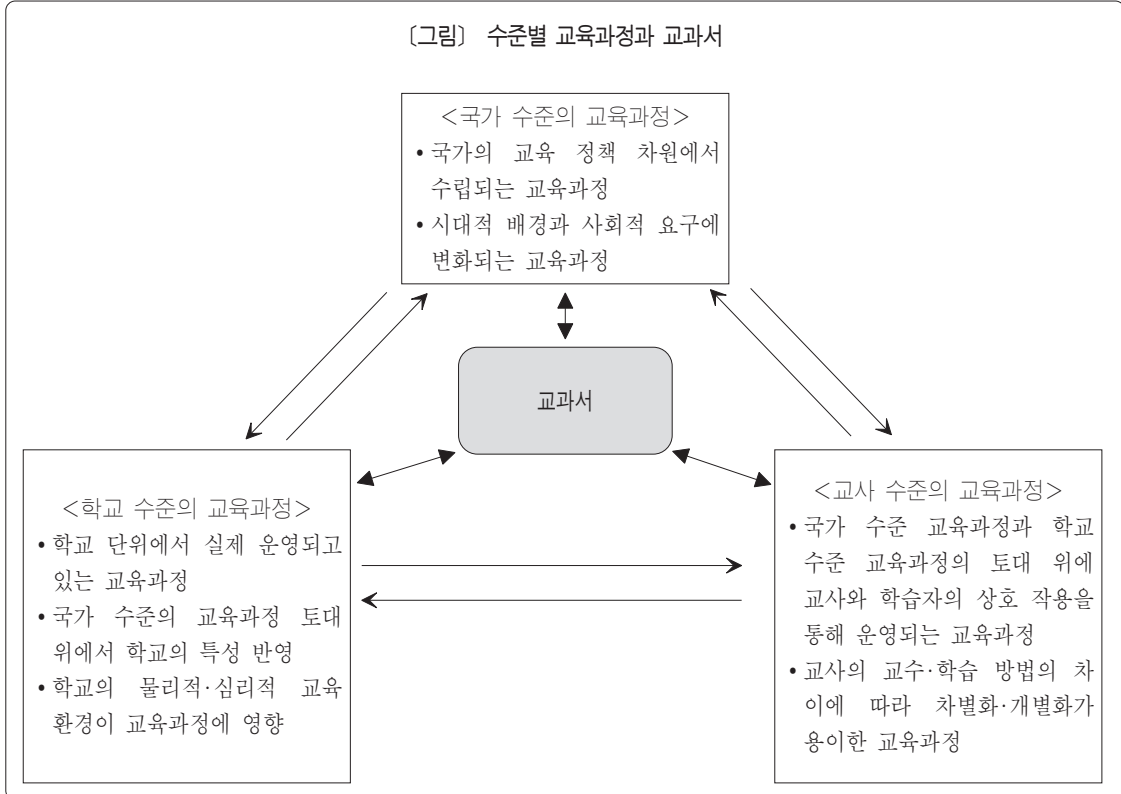


## 1. 교과서는 모든 교육과정의 공통 요소

교육과정,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교과서는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인 교육과정으로

이 교육과정 (教育課程—curriculum) 을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

〔그림〕 수준별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는 적어도 외형적인 모습에서부터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크기 확대, 용지의 질적 향상,  
4도 이상의 색도 사용 등으로 인해 시각적인 효과가 제고되고,  
교과서 내에 수록되는 자료의 양적·질적 향상이 두드러졌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그 당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의 교육 철학을 반영하여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수립되는 교육과정으로 국가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의도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교과서라는 교수·학습의 매개체로 부각된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수립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사회과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최초로 김정 교과서가 됨에 따라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모두 10종, 2·3학년은 각각 9종, 8종의 교과서가 발행되었으며, 학교에 따라 교과서를 택 1하여 교수·학습에 이용하고 있어 학교마다 사용하는 교과서가 다를 수 있다. 즉, 국가의 교육 이념이나 철학이 교과서로 구현되고, 학교 단위의 교육 현장에서는 그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의 내용이 곧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사 개인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를 중심 매개체로 교수·학습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교사에 따라 교과서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자료를 별도 제작하거나,

교과서를 재구성, 또는 교육과정 자체를 교과서와 전혀 별개로 독창적인 고안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학습자들에게 교과서는 학습의 필수 도구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육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교수·학습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그 주요 매개체(교수·학습의 도구)가 국가 수준에서 마련되고 학교 수준에서 선택되었으며, 교사 수준에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가 교육 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겠다.

## 2. 중학교 사회과의 제6차와 제7차 교과서 비교

### 가. 외형적 변화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는 적어도 외형적인 모습에서부터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크기 확대, 용지의 질적 향상, 4도 이상의 색도 사용 등으로 인해 시각적인



효과가 제고되고, 교과서 내에 수록되는 자료의 양적·질적 향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지도와 사진, 각종 통계 자료 등을 많이 요구하는 사회과의 경우 이러한 교과서의 외형적인 변화는 교수·학습에 있어 교과서의 활용도를 대폭 신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 나. 단원 편성상의 변화

제 7 차 교과서는 단원 편성에 있어, 우선

지역 지리 관련 내용을 1 학년에 모두 수록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제 6 차에서 두 단원으로 구성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한 단원으로 통합하고, 2 학년에 편성되어 있던 유럽 문화권 지역을 1 학년에 배치함으로써, 제 6 차에 비해 1 학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간적 범위는 확대시키되, 각 지역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제 6 차에 비해 축소시키고, 공간적 학

[표 1] 단원 편성상의 변화(국사는 제외)

구 분		단원명	
학 년	세부 영역	제 6 차	제 7 차
중학교 1 학년 (제 7 학년)	인간과 공간	· 지역 사회 탐구 · 중부 지방의 생활 · 남부 지방의 생활 · 북부 지방의 생활 · 동부 및 동남 아시아의 생활 · 남부 및 서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생활	· 지역과 사회 탐구 · 중부 지방의 생활 · 남부 지방의 생활 · 북부 지방의 생활 ·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 유럽의 생활 ·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인간과 시간	· 지역 사회 탐구 · 고대 문명의 형성 ·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문화권의 형성 · 아시아 전통 사회의 변화	· 지역과 사회 탐구 · 인간 사회와 역사 ·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 ·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
	인간과 사회	· 지역 사회 탐구	· 지역과 사회 탐구
중학교 2 학년 (제 8 학년)	인간과 공간	· 유럽의 생활 ·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 현대 세계의 전개	· 현대 세계의 전개
	인간과 시간	· 유럽 문화권의 형성 ·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 ·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성장 · 현대 사회와 시민 생활 · 현대 세계의 전개	· 유럽 세계의 형성 ·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 · 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근대적 성장 · 현대 세계의 전개 ·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인간과 사회	· 현대 세계의 정치·경제 · 현대 사회와 시민 생활 · 현대 세계의 전개	· 현대 세계의 전개 ·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 개인과 사회의 발전 · 사회 생활과 법 규범

중학교 3학년 (제9학년)	인간과 공간	· 공업화와 인구 및 도시 문제 · 자원과 지역 개발 및 환경 문제 · 세계화 시대에의 대응	·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 자원 개발과 공업의 발달 ·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 · 지구촌 사회와 한국
	인간과 시간	· 세계화 시대에의 대응	· 지구촌 사회와 한국
	인간과 사회	· 인간과 사회·문화 생활 · 민주 정치와 시민 생활 · 경제와 시민 생활 · 국민 생활과 법 · 세계화 시대에의 대응	·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 시장 경제의 이해 ·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 지구촌 사회와 한국

※ 고딕 서체는 통합 단원을 나타냄.

습의 바탕 위에 역사적 사실과 일반 사회 현상(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의 학습이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현상을 1학년 과정에서 학습하고 2학년 과정에서 유럽 문화권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현상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세계 지리와 세계사의 연계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단원별 내용 구성상의 변화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 (1) 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위한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
- (2) 학습 내용에 적합한 주제와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단원의 재구성과 수업 운영
- (3)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 활동 보장
- (4)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 (5) 정보화에 대처하는 학습 지도

#### (6) 민주 시민 교육과 환경 교육

이러한 강조점이 교수·학습 전개 과정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 구성상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하며, 중학교 제7차 사회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1) 중단원별로 심화 과정을 배치하여 고차적 사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배당 시간의 80%를 기본 과정에, 약 20%를 심화 과정에 할애하여 교수·학습을 운영하게 되어 있다. 심화 과정의 내용 구성상 특징은 다양한 자료(사진, 지도, 신문 기사, 삽화, 통계 자료 등)로 대변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실용적인 자료의 수집과 활용 능력을 고양하고, 지식을 실생활과 접목시켜 이해하는 지식의 실용화에 효과적이다.

(2) 학습 내용의 서술 방식에 있어 백과사전식의 나열식 서술 방법이 줄어들고, 탐구 활동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사회 과목에 대한 잘못된 편견-사회 과목은 나열된 지식의 단순 암기 과목-에서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즉, 학습자 중심의



탐구 학습이 보장되는 교수·학습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탐구 활동의 전개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의 수집 및 문제 해결을 하는 인터넷 활용 수업이나 신문 자료를 활용한 NIE 교육, 동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등이 강조되고 있어 정보화 시대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3)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발문식 표현이나 실제 사례 제시형 서술 등이 많아졌다. 특히, 중단원이나 소단원의 명칭부터 해

당 단원에서 주로 다루게 될 주제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개성 있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 도입 단계에서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4) 지역 사회의 시사적인 내용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사회의 경우 각 지역의 지리적 사실을 다루면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 문제, 환경 문제, 지

[표2] 제7차 중학교 사회 1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흥미 유발식 표현의 예

출 처	흥미 유발식 표현(학습 주제)
D 출판사	“지도를 알면 지역이 보인다”(지도읽기) “우리 나라는 온 국토가 박물관이다”(지역 사회의 문화재) “동네에서도 세계가 보인다.”(지방 자치 단체) “강릉 사람들이 부러웠던 원주 사람들”(중부 지방의 기후) “21 세기의 국토 개발을 위해 남겨진 공간”(충청 지방의 변화)
K 출판사	“우리 조상들이 김치를 만들어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자연 환경과 주민 생활) “한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왜 서쪽으로 흘러갈까?”(중부 지방의 지형)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한 여름에 어떻게 배추 김치가 식탁에 올라올 수 있을까?”(관동 지방의 고랭지 농업)
J 출판사	“제주도는 우리 나라에서 감귤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며,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아 3다도라 불린다. 이 곳은 장마와 태풍이 가장 먼저 도착하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자, 가장 작은 도(道)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관광 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G 출판사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학교의 교실을 들여다보자.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있다. 마치 인종의 전시장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문화적 배경)
S 출판사	“세계에서 바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정동진역”(관동 지방의 관광 자원)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수운: 강령의 쇠퇴”(충청 지방의 도시 발달)
KL 출판사	“하늘의 고속 도로가 가장 많이 통과하는 북극 지방의 하늘”(양극 지방의 생활) “해수면이 상승하면 가장 많이 잠기는 곳은 어디일까?”(태평양의 여러 섬들)
KS 출판사	“가구가락(可口可樂), 백사가락(百事可樂), 긍덕기(肯德)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어떤 상품일까?”(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중국) “유럽은 반도 대륙?”(유럽의 지형)

역 간의 격차와 계층 간의 격차 문제 등의 발생 원인과 문제 해결 방법이나 해결 노력 사례 등을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민주 시민의 참여 의식을 고양하는 태도를 기르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5) 단원의 도입부와 단원 마무리 부분의 내용 구성이 다양화되었다. 도입 부분의 경우, 단원에서 학습할 주요 주제를 대변하는 사진 자료나 삽화, 지도와 함께 대화형 또는 발문형의 구어체 문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있으며, 단원 마무리의 경우, 학습한 내용을 백지도나 낱말 퍼

즐 맞추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흥미를 갖고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특정 영역(지리, 역사, 일반 사회)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원에서도 관련이 있는 다른 영역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학년 사회의 경우, 지리 영역에서 세계 여러 지역을 문화권을 중심으로 구분함으로써,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 구분을 이해하게 하였으며, 내용 전개에 있어 지역의 자연 환경 특색을 먼저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표3〕 제6차와 제7차 사회 교과서의 단원 도입부와 단원 마무리 내용 비교

단원 구분		제6차	제7차
대단원	단원 도입부	· 단원명과 관련 자료(사진, 지도 등) 제시 · 단원 학습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문어체의 지식 나열형 문장	· 단원명과 관련 자료(지도, 사진, 읽기 자료 등)의 제시 형태 다양화 · 단원 학습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문어체의 지식 나열형 문장 외에 구어체 문장 활용(일부 교과서는 학습할 지역의 지역 구분을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백지도 제시)
	단원 마무리	· 단원에서 학습한 주요 내용을 학습 순서에 따라 정리된 문장 형태로 제시	· 내용 정리의 다양화—구조도, 흐름도, 빈 칸 넣기, 마인드 맵, 지도를 이용한 내용 정리 등 · 다양한 형태의 단원 평가—낱말 퍼즐, 백지도 이용, 게임식, 구조도 등
중단원	단원 도입부	· 단원 학습 내용을 요약한 문어체의 지식 나열형 문장 · 주요 학습 요소를 파악하여 답하는 과제를 몇 개의 단순 질문형 문장으로 제시	· 삽화나 지도, 사진 등을 동기 유발식 문장 표현(발문형, 대화형 등)과 함께 제시(일부 교과서는 중단원 도입부 생략) · 단원의 학습 목표를 서술식으로 제시(일부 교과서는 소단원별로 학습 목표 제시)
	단원 마무리	· 형성 평가 형태의 문제 풀이	· 중단원별 형성 평가 생략(일부 교과서는 제6차와 비슷한 형태의 중단원별 형성 평가 유지)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역사적 특징이나 정치·경제적, 또는 문화적 특징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라. 교과서 집필 과정의 변화

제 6차와 제 7차 교과서의 큰 차이점은 집필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실 이러한 제작 과정상의 변화가 제 7차 교과서의 새로운 내용 구성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여러 출판사에서 경쟁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고자 하였고, 대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교과서 저작자 집단에 중·고등 학교 현장 교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저작자 구성이 다양화되었다.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기존의 교과서를 매개체로 교육 활동을 하며 교과서의 한계를 피부로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재를 제작하고 활용했던 현장 교사들의 체험이 곧 제 7차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교과서의 집필 과정은 교수 집단과 현장 교사 집단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즉, 교육과정의 이념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의 이론적인 면이나 교과서의 세부 영역 구성 등은 교수 집단이 담당하고,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 구성에 있어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적합한 표현 방식의 고안이나, 적절한 탐구 활동 자료의 제시, 단원 도입이나 단원 마무리의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법 제시 등은 현장 교사 집단이 담당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 3. 제 7차 교과서의 한계와 개선 방안

학교 현장의 대부분 교사들은 제 7차 교과서가(사회과는 물론이고) 대부분 교과 영역에서 제 6차 교과서에 비해 교수·학습 측면에서 질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 학습자 역시 교과서의 외형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달라진 교과서의 모습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과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 가. 기계적인 통합, 현실적 분리(?)

중학교에서 사회과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크게 세 가지 영역-지리, 역사, 일반 사회-으로 구분하여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 1학년에는 지리와 역사, 2학년은 역사와 일반 사회, 3학년은 일반 사회와 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년별로 한 단원씩 통합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각 단원을 교수함에 있어 통합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영역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단원별 내용 구성 자체가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고양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각 영역의 학문적 독립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굳이 이러한 학문적 권위가 중학교 교과서에까지 투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대안으로서는 미흡함이 너무 많아 함부로 제시하기에 염려가 되지만,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지역의 사회적 현상을 교과서에 제시할 때, 지리 영역에서 중국의 지리적 특징을 학습하고, 세계사 영역에서 황하 문명부터 중

화 민국의 탄생까지 시대순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같은 단원에서 공간적 특징과 시간적 특징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 서술 방식도 철저하게 나열식을 지양하고 주제별 제시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나. 전체적으로는 사회 현상의 나열식, 부분적으로만 주제식(?)

지리적 현상이나 역사적 사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같은 사회 일반적 현상의 나열식 서술은 제6차에 비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리 영역에서 여전히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마치 지구 전 지역을 순회하는 듯한 지역별 특징의 제시 방법이나, 역사에 있어 시대순으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 등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학생들에게 사회과는 복잡하고 외울 게 많은 골치 아픈 과목으로 인식된다.

특정 현상을 주제로 그 현상이 이 사회에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다른 공간이나 다른 시간대를 찾아 관련지어 이해하고, 이러한 탐구의 과정을 통해 사회 현상의 일반적 특징을 유추해 내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 다. 검정 교과서이지만 아직도 많은 통제(?)

제7차 사회 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한 마디로 통제가 많다는 것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이라는 책자는 교과서 집필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겨졌고, 특히 저작자보다 출판사의 편집진에서는 이 기준과 조금이라도 어긋나 교과서 검정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몹시도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엄격한 검정 기준은 저작자들의 다양한 집필 유형을 획일화시키고 결국 다양하고 참신한 교과서의 제작에 적지 않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미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원칙 제시 수준으로 축소되어 교과서의 검정 기준 자체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주요한 하나의 교수·학습 도구이지, 모든 교육 활동의 성전(聖典)은 분명 아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교과서가 제작되어도 이를 활용하여 실제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 집단의 부단한 자기 연찬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교과서는 실용성 없는 지식이 듬뿍 들어 있는 무거운 짐으로 학습자들에게 여겨질 것이다.

교과서가 교수·학습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교재로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제작 과정에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교과서와 함께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도구의 개발과 활용, 또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 다양한 구성과 자료 제시 등 많이 달라진 교과서

■ 글 / 이우진 (청담고등학교 2학년)



중 학교 3학년까지 제 6 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로 공부했던 나는 고등 학교에 입학하여 교과서를 펼쳐 보고 나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문제집 크기에 원색 삽화, 생생한 사진 자료……. 자습서를 연상하게 하는 교과서에 애착을 느껴 몇 년만에 정성껏 표지를 싸기도 했다. 그렇게 기대가 컸던 교과서로 1년을 공부하고, 이제 2학년이 되어 또 새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교과서에 대한 사용 소감을 몇 가지 적으려고 한다.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고등 학교에 올라와 교과서를 받고 나서, 그 중에서도 사회와 국사 교과서를 펼쳤을 때의 기분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았다. 자습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원색 사진과 함께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 혹은 파란색 따위로 강조되어 있고, 조금 복잡한 내용에는 만화 캐릭터가 등장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았다. 이렇게 원색 인쇄를 기본으로 하는 구성은 학생들이 본문 내용에 지루해할 때 쯤 다시 한 번 더 새겨 보는 데 효과가 있었다.

## 1. 딱딱한 교과서란 고정 관념에서 탈피

교과서에서 늘어난 컬러 지면은 학습 의욕을 증대시킨다. 중학교 때 제 6 차 교과서 본문은 모두 흑백이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과목이 더욱 딱딱하게 느껴지곤 했다. 나로서도 암기할 내용이 많은 사회 교과서를 읽을 때면 잔뜩 긴장해서 읽어야만 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흑백 사진 투성이의 교과서로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특히 사회, 국사 과목 교과서는 공부하기도 전에

## 2. 교과서로 익히는 숲을 보는 공부 자세

개인적으로 토플 에세이를 준비할 때 마인드 맵을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개요를 짜는 연습을 했다. 그런데 영어 교과서에서 “after you read”라는 부분은 본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마인드 맵과 같은 활동이었다. 본문 내용을 학습한 후, 그 요지가 무엇이었는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개요 짜는 훈련을 하다 보니 공부한 것의 뼈대가 잡히고 주제문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영어 학습

사회와 국사 교과서를 펼쳤을 때의 기분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았다.  
 자습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원색 사진과 함께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  
 혹은 파란색 따위로 강조되어 있고, 조금 복잡한 내용에는  
 만화 캐릭터가 등장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았다.

의 목표는 시험 점수의 향상보다는 사회에 나가 영어를 도구로 활용하여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지문을 읽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교과서부터 이것을 중시하다 보니 이젠 어떤 언어로 쓰여 있건 항상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 3.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공부 유도

수학 교과서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이 확대되고, 단계별로 더욱 체계화되었다. “수학에서 어려운 공식을 배워 봐야 쓸모 없어. 실제 생활에서는 기껏해야 돈 계산 같은 걸 할 때 사칙 연산이 쓰이는데 그건 계산기가 다 해 주니까 말이야.”라고 말하는 회의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런 친구들에게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가장 유익하고 수학을 통해 다져진 논리력으로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렵지만 설득하곤 했었다. 그런데 수학 교과서를 보면 ‘탐구 학습’, ‘생각 열기’, ‘직접 해 보기’, ‘수학 산책’, ‘수행 평가 활동’, ‘읽을거리’ 등의 코너가 있어서 끊임없이 흥미를 유발시킨다. 우리들은 가끔 어떤 문제를 접하면서 그것이 너무 복잡해서 풀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수학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수학적 기호로 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려고 수학에서 이런 개념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암호학 분야는 21 세기에 들어서 개인, 국가 정보 보안을 위해 중요해졌다. 그런데 행렬 부분 진도를 나갈 때, 연습 문제 뒤에 약속된 행렬을 이용해 각 알파벳을 암호화하고, 상대방은 역행렬을 써서 그걸 풀어서 읽는 활동이 있었다. 사소한 발상이었지만 내 마음을 수학을 이용해서 암호화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수행 평가’ 코너에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풀이법을 토론해서 찾아보고, 유사한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 그 수학적 개념을 어떻게 응용할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 4. 깊이가 더해진 수준별 학습

제 6 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면 수학 정도에만 심화 문제가 있었고, 수학을 제외한 과목은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제 7 차 교과서에는 학습 활동, 보충, 심화 학습 등 단계에 따른 내용의 다양화로 수준별 공부가 가능해졌다. 국어 상·하 교과서는 보충, 심화 학습으로 진단 평가를 한 뒤에 자



기 수준에 맞는 내용을 공부하게 하였다. 문학 교과서 같은 경우엔 작품에 따른 학습 활동이 적어도 2쪽이다. 제6차 때의 문학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이 평균적으로 1쪽이었던 것에 비하면 분량이 많이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작품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 활동에 그 작품과 주제 의식이나 표현 방법이 비슷한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있어서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오영의 ‘부끄러움’을 공부할 때에는 이흥렬 작곡의 ‘부끄러움’ 동요와 공통점을 찾는 문제가 있다. 또, 그 상황을 응용해서 짧은 수필도 쓰게 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제, 소재, 성격, 특징 등을 시험을 위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썼던 글만 떠올려도 그 작품에 대한 것이 몸에 익어서 우리나라. “밋줄 짝”, “왕별 표시”와는 거리가 멀게 “친해지기”, “꼼꼼히 읽기”, “시아 넓히기” 단계를 통해 ‘작가가 정말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었구나. 그런 환경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해서 이겨 내곤 했구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작가들의 절절한 마음에 동화되어 갔고,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풍성한 삶을 위해 문학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었다.

## 5. 미끈미끈, 필기에는 불편한 지질

앞에서는 장점을 주로 제시하였지만 불편한 점도 있다. 교과서의 지질이 문제이다. 학교에 사물함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등·하교한다. 교과서가 중학교 때에 비해 커지고, 미끈미끈한 지질로 만들기 위해 종이에 석회가루를 입힌 것은 학생들을 질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라

고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책 7권과 공책, 공부할 참고서들을 다 가지고 다니는 학생에게는 지질로 인해 무거워진 교과서가 너무 부담스럽다. 또 종이가 미끈거리어서 연필로 표시하면 흐릿하고, 볼펜으로 필기하면 번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일본에서는 재생지를 사용해서 책값을 낮추고, 석회가루를 입히지 않아 가벼워서 독자들이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이 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 교육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종이 질이 떨어지면 원색 삽화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딜레마가 있으므로 이 모든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좋겠다.

## 6.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몇몇 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은 참고서 없이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과학을 좋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과학 교과서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과학은 개념을 파악하고 실험을 통해 익히며 문제를 풀어 다지고 관련 서적을 읽어 지식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국의 생물 교과서는 500쪽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과학책은 많아야 250쪽 정도이고, 분량에 제한받다 보니 실험, 문제, 읽을거리들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선생님께서 별도로 개념 정리, 정답률이 낮은 ‘학생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틀리기 쉬운 문제들을 집중해서 풀어 주시고 있다. 다른 과목의 교과서는 월등히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안타깝게도 제6차 때의 과학 교과서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제7

전체적으로 교과서가 학생에게 친숙하고 원리를 이해하도록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이끌도록 다양한 구성과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 내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차 때에도 또다시 가지게 된다.


## 7. 너무 삽화에 집착한 건 아닌지

고등 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국어 상·하 교과서는 쪽마다 들어가야 할 삽화의 숫자를 정해 놓은 것처럼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다. 물론 삽화가 본문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불필요한 그림이 들어갈 바에, 차라리 이 공간에 문학 교과서에서처럼 풍부한 생각을 자극하거나 성격, 주제 따위가 밀접한 작품을 공부할 수 있는 활동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다행히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는 매 작품마다 모둠별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그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심화 선택 과정 교과서에서는 덜하지만 국어 상·하 교과서에서는 주요 작품에 대한 설명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삽화보다는 내용적인 면을 보충하는 쪽이 학생들에게 무거운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는 보람도 주고,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사진 자료를 더욱 진지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8. 그래도 많이 달라진 교과서

전체적으로 교과서가 학생에게 친숙하고 원리를 이해하도록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이끌도록 다양한 구성과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 내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시각 자료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다면, 교과서를 가볍게 볼 수 있고 내용을 담을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학년을 마치고 나면 그 교과서가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리는 일도 많이 보아왔다. 교과서는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끝나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에 남는 교과서가 되면 좋겠다.

한 가지를 덧붙이면 제7차 교과서에는 각 활동에 유용한 사이트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 학교에는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프로젝터 등 각종 기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이런 기자재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한다면 더욱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 일반계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글 / 박종근(장유고등학교 교사)

## I. 시작하며

『일반계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 학교를 2년간(2002~2003년) 운영한 본교는 화려한 연구 결과보다는 실천 가능하면서 일반화가 용이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모형 개발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30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 형태의 공개 보고회는 새로이 도입되어 적용된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모형 개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은 변화와 적응이라는 필연적 현상이라 하겠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면서 학교 실정에 적합하고, 실천 가능하면서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도시 외각 면 단위에 소재한 본교는 학생의 학력 수준과 학부모, 지역의 교육 환경을 고려한 현재의 여건에서 학생의 진로를 돕고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학교 운영 이후에도 지역에서의 교육과정 중심 학교로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반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창의적인 편성·운영 사례와 연구 학교 운영 성과 및 평가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II. 창의적 편성·운영 사례

1. 집중 이수 과정을 학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운영하였다.

1학년 때 선택한 과정과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이수해 본 후, 진로를 변경한 학생에 대해

이수 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과정 변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편성 단계부터 유념하였는데, 과정의 특성이 큰 과목은 가능한 한 3학년에 편성하였다.

예컨대, 수학 II 와 같이 2학년에 편성하면 과정 변경이 어려운 과목이 있으며, 같은 과목을 2년에 걸쳐 이수하도록 편성하면 과정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과정을 변경하여도 학생의 진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택 과목, 특히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안배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택에 있어서의 시행 착오를 수정하고, 진로 탐색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 2. 소수 학생이 희망한 이수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예·체능 과정의 경우, 선택 과목의 특성이 강해 유사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예·체능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체육, 음악, 미술 전공이 별도의 과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개의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각각의 전공이 한 개 학급 편성이 안 될 경우, 어려움은 더욱 크다. 본교에서는 본교 교사 외에 도 교육청의 지원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인근 학교와 통합하여 체육, 음악, 미술 전공을 각각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소수 학생 희망 이수 과정 운영의 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 3. 교과와 성격이 다른 과목끼리 묶어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집중 이수 과정은 임의의 과정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 학교에서 과정을 개설하여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 이수 과정을 개설하고 그 안에서 과목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운영면에 있어서는 편리함이 있지만 학생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제한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교과와 성격이 다른 과목들을 묶어 선택하게 하는 것은 집중 이수 과정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선택권의 제한을 완화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의 선택 결과가 교원 확보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다.

## 4.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였다.

같은 교과에서 편성된 두 과목의 이수 단위 수를 같게 하여, 학기별로 집중 이수하게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켰다.

## 5. 진로 안내서(『나의 진로를 찾아서』)를 제작·활용하고 일반화하였다.

체계적인 진로 안내를 위하여 제작된 진로 안내서는 교육과정의 이해, 나의 이해, 직업의 이해, 진로 및 과목의 안내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순서대로 따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자는 1차 연도에 도 교육청의 지원으로 도내 모든 일반계 고등 학교에 3권 이상 배부하여 일반화하였고, 활용 중 발견된 미흡한 부분과 대입

제도 등 변경된 부분을 보완하여 2차 연도에 다시 교육청의 지원으로 발행, 보급함으로써 일반계 고등 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진로 안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6.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진로 정보 자료실’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진로 정보 자료실은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상담 자원 봉사자가 상주하면서 자료 안내와 상담 활동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진로 사랑방으로 이용하였다.

### Ⅲ. 성과 및 평가

1. 일반계 고등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현재의 여건에서 얼마나 그 정신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부분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시설과 인적 구성의 토대 위에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실천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어떻게 하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2. 진로와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진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10학년 1학기 중에 선택 과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10학년의 1학기 중에 체계적인 진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설문 조사 결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시행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학생, 학부모 모두 ‘선택에 있어서의 실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안감과 함께 일찍 그 진로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 지도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병행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교육과정 업무 처리 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하였다. 학교나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종래에는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던 것이 이제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해진 반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더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단계별·실행 순서별 절차와 이루어져야 할 일 등 업무 처리 과정을 제시하였다.

4. 집중 이수 과정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진로와 선택 과목이 일찍(10 학년) 결정된 만큼 선택 과목 이수 중에 과정을 변경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이수 과정의 특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수학, 사회, 과학과의 선택 과목들을 11 학년과 12 학년에 적절히 배치하여, 11 학년에 이수 과정을 접해 보고 이수 과정을 변경하여도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대학 진학 등에서의 학생 불이익도 없게 하였다.

5. 일반계 고등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제 7 차 교육과정이, ‘결정해 준 것을 운영’하는 것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원칙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이에 과정 개설의 원칙, 선택 과목 개설 방법, 과목 개설의 기준, 이수 방법,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2005 학년도 대입 전형 제도, 특히 대 수능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고등 학교에 제 7 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대입 전형 제도도 바뀌었으며, 일반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상 대 수능과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진로와 직업, 직업과 학과, 학과와 대 수능, 대 수능과 선택 과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로와 대 수능에 맞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7.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권이 학교로 많이 위임된 만큼 교사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의 이해 정도는 교사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다. 이에 모든 교원을 교육과정위원회에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각 분과의 활동이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연수와 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교과협의회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참가하도록 하고,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연구 학교의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 Ⅳ. 마치며

연구 학교 운영 보고에서는 편성 모형은 제시하였으나 모의 운영으로만 거쳤던 예·체능 과정이 실제 운영에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의 이동 수업 운영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

요하였다.

예·체능 과정은 체육 전공, 음악 전공, 미술 전공으로 통합 편성(1 학급)하여 전공별로 전문 교과(실기, 이론) 지도에 필요한 경비(음악, 미술 교과 강사료)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일천육백만 원)받아 2월 말까지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그 과정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교과협의회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강사 채용 공고 ▶ 서류 및 면접 심사 ▶ 수업 및 평가 계획서 제출 ▶ 가정 통신문 발송 ▶ 전공별 오리엔테이션

체육 전공 교과는 본교 교사가 지도하고, 음악 전공 교과는 인근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미술 전공 교과는 지역의 미술 전문 학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집중 이수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해당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2004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학급 편성과 이동 수업의 운영은 수월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학생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이기에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본교는 교육과정 연구 학교를 운영한 학교로서 연구와 실제 운영이 차이가 없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학생 중심의 새 교육과정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출발이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로 운영하고 있다(장유고등학교 <http://www.jangyoo.hs.kr>). 24

# 인정 도서의 제도 개선

■ 글 / 이춘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보출판부장)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수업의  
장에서 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따라 상당 부분 수업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물론 교과서가 과거에는 경전관  
의 위치에 있어서 그 영향이 절대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자료 중의 하나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서 교사의 수업 내용 재구성  
에 따라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있다. 우리  
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라는 용  
어는 교과서와 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의미  
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교  
수·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해당 교  
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엮은 책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생들  
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2항). 아직까지는 전자 저작물  
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정 심사를  
통과한 예가 없지만 점차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학교 수업에 도입될 것으로 본다.

이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정 도서’는

국정 도서(과거에는 1종 도서라고  
지칭하였다.), 검정 도서(검정 심사  
를 통과한 교과서와 지도서)가 없  
는 경우라든가, 이러한 도서를 특수  
한 사정에 따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  
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의미한다(제2조 6항). 이러한 교과용 도서  
가 실제로 수업에 활용되기까지는 일정한 절  
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정 도서를 출원하여  
심사 후, 교과용 도서로서 인정되기까지의 일  
련의 인정 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학교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위치와 편찬 제도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  
의 개념과 역할은 계속 변해 왔다. 그 중 가  
장 큰 변화는 교과서가 점점 ‘교재’(敎材)로  
부터 ‘학습재’(學習材)로의 변화를 들 수 있  
다. 즉, 교과서가 지금까지의 학습에 있어서  
주된 교재의 기능보다는 학습재로서의 기능  
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편찬되고 사용해야 한

**교과서의 개념과 역할은 계속 변해 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교과서가 점점 ‘교재’(教材)로부터**  
**‘학습재’(學習材)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다는 점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 교과서는 ‘학생에게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서책, 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교과용 도서에는 학생용 도서와 패도, 지구의 등의 교사용 교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1963년에는 교과용 도서에 순전히 학생용 도서만 포함하여 정의하였으나 1977년부터는 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포함시키고 2000년에는 주교재와 보완 교재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교과서, 지도서, 인정 도서를 모두 교과용 도서에 포함시켜 도서 개념에서 교재 개념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교육과정을 가진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찬 제도는 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나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저작하거나 전문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만드는 교과서 발행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 도서 전체를 연구소나 대학에 위탁하는 형태로 편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제는 편찬 계획에서부터 연구·개발, 심의, 발행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관장하는 교과서 제도이다. 이러한 국정제가 점차 축소되어 검정제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검정제는 교과서의 저작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국정제와 같으나, 교과서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다. 검정 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로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 관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국정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사용 여부에만 관여하는 인정제에 비하여 국가가 관여하는 폭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대부분이 국정제에 따라서 만들어지며, 중등학교의 대부분은 검정제로 교과서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교과서에는 독본형, 강의 요약형, 필기 대응형, 문제집형, 연구 자료형, 학습 자료형, 견본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더 나아가 자유 발행제로 변해 가면서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

결국,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유형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습자에게 가치가 있는 진실의 정보를 선택하게 하고 전달하는 정보 기능형 교과서가 하나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화 기능형 교과서를 들 수 있다. 마지막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학습하고 탐구하는 방법 등을 터득할 수 있는 학습법 기능형 교과서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유형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습자에게 가치가 있는  
진실의 정보를 선택하게 하고 전달하는 정보 기능형 교과서가 하나이다.

## 2. 인정 도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정 도서는 교과서나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이다. 이 도서는 권한의 위임에 따라(제 40 조 1 항) 각급 학교에서 사용될 인정 도서의 인정은 교육감에게 위임되고 있다. 인정 도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인정 도서는 교육장(고등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당 지역의 학교(고등 학교의 경우는 당해 학교) 교과목에 관하여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가 없는 경우에,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 인정 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를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첫째로, 학과가 신설되었거나 새로운 교과목 개설로 인해 교과용 도서가 전혀 없는 경우에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실업계나 기타 고등 학교의 전문 교과 의 경우 특수한 내용에 대하여 교과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중·고등 학교의 교양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이러한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교과서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

대, 선택 과목인 종교·교육학·철학·논리학·심리학 등의 경우 이러한 교과를 배우는 학생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정 도서를 만들지 않고 인정 도서를 사용한다. 넷째로, 재량 활동이나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교재도 다양하여 수혜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교과서를 만들어 인정 도서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로, 일반 교과서나 지도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 도서를 사용한다. 예컨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방송용 교재는 정규 학생에 비해 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과 연령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규 교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인정 도서를 사용한다. 여섯째로, 검정 도서는 있으나 보완 교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함수곤 외, 2002). 따라서, 앞으로 인정 도서는 점점 더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어 활용될 전망이다.

인정 도서의 신청은 지역 교육장 또는 고등 학교장(공·사립)이 인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신청(국립의 각급 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신청)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교육장,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인정 도서 승인 신청권자이지만, 지역 교육청 교육장에게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청권은 오직 학교장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

**1차 심사 기준은 공통 기준과 교과 기준으로 구분하며, 공통 기준에서는 국가 정책, 교육 목적, 교육 내용상의 적합성 여부와 집필상의 공정성 등을 심사한다. 교과 기준에서는 교과 특성에 따라 필요 사항을 평가한다.**

위 학교의 실정, 학교가 속한 지역의 여건 및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창의적인 도서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정 도서를 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인정권자인 교육감(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인정 도서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김정호 외, 2002).

인정 심사는 검정 심사와 큰 줄기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지만 검정제에 비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소하게 진행된다. 심사 일정은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기간으로 정하고, 심사 장소는 공정한 심사, 심사의 편의 및 보안에 적합한 곳으로 한다. 심사는 1차 심사,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심사는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2차 심사는 1차 심사 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인정 기준은 교과목별로 교육감이 정한다. 1차 심사 기준은 공통 기준과 교과 기준으로 구분하며, 공통 기준에서는 국가 정책, 교육 목적, 교육 내용상의 적합성 여부와 집필상의 공정성 등을 심사한다. 교과 기준에서는 교과 특성에 따라 필요 사항을 평가한다. 2차 심사 기준은 1차 심사 결과 수정·보완 요구 사

항의 이행 여부와 표현·표기 및 편찬 체제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 기타 추가 수정 사항 등을 작성한다.

지금까지 인정 도서로 활용하고 있는 교과서에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컴퓨터 관련 과목(컴퓨터와 생활, 컴퓨터는 내 친구, 신나는 컴퓨터 여행 등), 종교·철학 관련(종교, 논리학, 교육학, 철학, 심리학), 지역 관련(전주의 생활, 군산 탐구, 익산의 생활, 우리 고장 정읍, 남원의 생활 등) 등이 있다.

### **3. 질 높은 인정 제도를 위하여**

앞으로의 우리 나라 교과서의 인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인정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과서 검정 제도 연구를 위하여 텍사스주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교과서 발행은 기본적으로 일반 출판사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며 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로서의 채택은 주나 지방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교과서 발행 제도는 인정제이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의 주요 골격은 주별로 공포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인정제는 각 교과서 발행자가 먼저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단위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인정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주 단위 인정제(statewide

adoption)와 주 단위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다. 미국의 연방 정부는 교재 기금을 확보하여 주 정부에 배정하고 각 주 교육과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연방 정부 교육기본 방침을 시달하는 업무 이외에는 모든 교과서 업무를 주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주 정부는 인정제라는 틀을 가지면서도 각 주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는 다른 양상으로 인정, 채택, 공급되고 있다. 어느 경우든 미국에서는 고등 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배포되는 모든 교과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무상이다. 출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며 교과서의 발행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출판사는 미국의 여러 주들 중에서도 많은 양의 교과서를 소비하는 주에 맞추어 교과서를 발행하는데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그러한 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 인정 도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인정 도서라 할지라도 교과별로 전문화된 출판사를 육성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를 한 출판사가 만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출판사의 전문 인력과 수년 간에 걸친 노하우를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교과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처럼 한 출판사가 전 과목에 걸쳐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기현상이다.

둘째, 해당 교과목의 내용 검증에 전문화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검정제에 비해 인정

제에 의한 교과서 출원이 쉬운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인정 도서를 떨어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개선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셋째, 인정제를 자유 발행제의 도입을 위한 중간 단계로써 교과서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 자유 발행제를 도입할 만한 기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이 사실이다.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진정한 의미의 교과 내용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다양한 인정 도서를 개발하는 데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교과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지역 현실을 감안한 다양한 인정 도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는 전국적으로 공통의 수준을 감안하여 만드는 것이라면, 인정 도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정 도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흥미롭고 질 높은 도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선진 외국의 인정 도서와 같이 전문화되고 지역화된 다양한 교과서가 만들어질 날을 기대해 본다. 24

#### 참고 문헌

- 교육부, 교과서 백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 김정호·이춘식·김광민·유영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 함수곤·최병모,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용어 사전, 한국교원대학교, 2002.

#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허와 실

■ 글 / 박남화 (한국교육신문사 본부장)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대두된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한 관심 사안의 하나가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이다. 특히, 지난 해 연말부터 올 연초 사이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이 문제는 매우 첨예하게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정책실 차원의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수면 아래로 잠복한 듯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은 국정·검정·인정 시대를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가 국정과 검정, 인정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중심 축이 국정에서 검정, 인정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현재 편찬되고 있는 교과서를 종별로 살펴보면, 국정 도서는 721종(721책)이며 검정 도서는 187종 1575책이고 인정 도서는 1100여 책이다.

## 1. 자유 발행제 주장의 근거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국가가 주도하고 관여하는 교과서 제도를 자율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현재의 국정·검정·인정 제도는 한결같이 정부의 관여와 통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보다 민주적이며 시장 경제 논리에 걸맞는 자유 발행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마치 얼마 전까지의 상용적 표현 양식이던 ‘군·관·민’식 발상을 오늘날의 표현 양식인 ‘민·관·군’식으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인 셈이다.

교과서 전문가들은 자유 발행제를 빗대어 교과서 정책의 한계 밖에 존재한다고도 말한다. 정부가 관여하는 정책의 범위는 국정·검정·인정 교과서에 한정되며 자유 발행제는 말 그대로 ‘누구나, 아무 책이나, 자유롭게 교과서를 저작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 가치관이 여과 없이 학교의 수업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같은 발상이야말로 획일화된, 경우에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상업주의적 경쟁심을 부추겨  
내용보다 ‘포장’에만 치중해 교과서 가격을 부풀린 뒤, 기존의 막강한 판매망이나  
자본력을 동원해 교과서 시장을 독과점할 소지도 충분하다.**

따라서는 강요되는 국가주의·전체주의식 교육 체제의 모순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교과서 형식이 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자유 발행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판·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일견하면 자유 발행제는 현재의 교과서 제도의 모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발전된 제도의 모습으로 비친다. 아마도 이 같은 인상적 판단이 대통령 자문 기구나 청와대 정책실 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자유 발행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 발행제에 대한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는 시기 상조론으로 요약된다.

마치 ‘자유’라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덕목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의 가치와 절차, 그리고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교과서 자유 발행제 역시 이상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당장 도입해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 마디로 자유 발행제가 도입되기 위한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전제 조건은 학교 교육 내용의 ‘기준 확보’이다. 기초적인 교육의 수준이나 기회 균등 문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의 일관성 확보, 교육 외적 변인에서 발생하는 문제 제

기에 대한 중립성 확보,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확보 등이다.

## **2. 대부분 전문가들 ‘시기 상조’**

시장 경제 논리에서 살펴보아도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상업주의적 경쟁심을 부추겨 내용보다 ‘포장’에만 치중해 교과서 가격을 부풀린 뒤, 기존의 막강한 판매망이나 자본력을 동원해 교과서 시장을 독과점할 소지도 충분하다. 특히, 이념 갈등이나 체제 모순이 첨예한 우리의 경우, 자유 발행의 형식을 빌린 ‘위험스러운 교과서’가 거름 장치 없이 일선 학교 교실에서 통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의미 있는 실례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검정제로 전환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현재 6종이 나와 있다. 국사책을 검정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시사적인 일이었으나 이들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 대한 시비가 첨예하게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실은 눈여겨볼 일이다.

또다른 사례는 이른바 ‘대안 교과서’에 대한 시비다. 2~3년 전부터 일부 교사들에 의해 저술된 책자가 대안 교과서란 이름으로 일선 학교에 보급되고 있다. 이들 대안 교과서는 ‘대안’이란 표현을 쓴 것처럼 현재의 교과서들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

문에 이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담고 출판되었다. 대안 교과서의 대부분은 국어나 국사 등 이른바 이념성 교과목에 편제되어 있다.

대안 교과서가 나온 뒤 내용과 보급 방식을 놓고 일선 학교가 크게 요동을 쳤다. 문제가 크다는 측과 문제 없다고 보는 측의 대립 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시비는 급기야 국회로까지 번졌다. 2002년 9월 열린 정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승일(한나라당), 김정숙 의원(한나라당) 등은 대안 교과서의 문제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응 방침을 심도 있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일부 교원 단체 소속 교원들이 제작한 국어·국사 과목 대안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이며, 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도 엄연히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소위 대안 교과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의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차례 지도하고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같은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대안 교과서들은 일부 교사들의 구독 권장 등에 힘입어 학생들에게 꾸준히 보급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해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살아 있는 한국사’ 같은 대안 교과서의 내용을 통일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정부 내 관련 부처나 기관에 의뢰해 면밀하게 분석했다.

### 3. 국회로 번진 ‘대안 교과서’ 논란

그 결과 통일부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고 시도 교육청의 통일 교육 담당 장학관과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 책자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바 있다. 국사 과목의 대안 교과서인 ‘살아 있는 한국사’의 경우는 더욱 확실한 실례가 된다.

‘살아 있는 한국사’는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소속 일선 교사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5명의 교사가 공동 집필했고 100여 명의 교사와 연구자가 검토 과정에 참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문제가 된 ‘살아 있는 한국사’의 내용 검토를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정밀한 내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02년 정기 국회에 ‘살아 있는 한국사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A4 용지 22 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는 130여 군데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책의 편찬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 교과서를 표방하고 현장 교사들이 이용하면서 학생들에게 권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표현한 역사적 사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과서’가 아닌 참고 자료로나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구성 및 흐름에 관한 것과 민중 사관 부분 등 두 가지였다. 구성·흐름 부분의 경우, 우선 ‘교과서’란 표현에 문제가 있으며 ‘살아 있는’이란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 발전적 시각을 지나치게 민중 사관의 시각으로만 바라본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적 사항 중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를 민중의 착취 기구로 보는 입장에서 서술



되었다.

- 계급 투쟁론에 입각해 지배 계층과 생산 대중이 유리된 반목·대립 현상만 노출시켰다.
- 집권층에 대한 민중의 항쟁만을 중요시한다
- 19세기 민중 항쟁을 계급 투쟁의 차원에서만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
- 1960년대 공업화 정책을 민중의 수탈이 구조화되는 등 부정적 측면만 과장하고 있다.
- 역사 용어가 현행 교과서와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 사진이나 그래프, 읽기 자료 등의 전거가 없거나 부적절하다.
- 적절치 않은 비교육적 표현이 많다.
- 우리 국군은 '남한군'으로, 북한군은 '인민군'으로 표현하는 등 서술 내용이 의심스럽다.

한편 '살아 있는 한국사'를 쓴 필자의 한 사람인 양정현 교사(서울구일고등학교)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을 '국사 교과서 국정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의 대안 교과서 개발 작업은 국정 교과서가 안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국정 교과서는 재미 없고, 외울 것 많고, 학생들에게 의미 부여 되지 않는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는, 한국사 개설서 요약본에 가까운 체제이다.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가 이전에 비해 변화된 점이 없지 않으나 크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한계를 안고 있는 국정 교과서의 대안적 형태의 교과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였다.”

대안 교과서에 참여한 교사들은 분명히 현행 국정 교과서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 작업으로 이 책자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 내용이었다. 2002년 3월에 편찬된 '살아 있는 한국사'는 해당 교사들의 적극적

인 구독 권장 등에 힘입어 상당수의 책자가 학생들에게 팔려 나갔다. 국회 차원에서까지 비화했던 대안 교과서 문제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용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교사들은 대안 교과서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구독을 권장하는 등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는 이념 갈등이나 가치관에 대한 대립 양상이 심각한 우리 나라의 현 상황하에서 교과서 자유 발행제가 도입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고해 주는 셈이다.

#### 4. 외국 제도와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

교과서 제도는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도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정·검정제를 교과서 정책의 주요 축으로 하면서도 국정의 수를 줄이고 검정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인정 도서 역시 그 폭이 많이 넓어졌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여건과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서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 자유 발행제의 도입은 엄청난 혼란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다. 바로 이 점이 교과서 자유 발행제에 대한 시기 상조론의 설득 근거가 된다.

외국의 교과서 제도가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타산지석'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제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교과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벨기에, 이



**여건과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서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  
자유 발행제의 도입은 엄청난 혼란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다.  
바로 이 점이 교과서 자유 발행제에 대한 시기 상조론의 설득 근거가 된다.**

탈리아, 캐나다 등은 인정제로 운영된다.

반면에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은 검정제다. 핀란드나 필리핀은 아직도 국정제로 운영한다. 그 밖의 많은 나라들은 두 세 가지 제도를 병행해 운영한다. 검정과 인정을 병행하는 나라는 스페인과 러시아이며, 국정과 검정을 병행하는 나라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많다. 국정과 인정을 병행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파라과이고, 국정과 자유 발행제를 함께 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스위스이다. 자유 발행제와 인정을 병행하는 곳은 프랑스가 유일하고 우리처럼 국정, 검정, 인정을 섞어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등이다.

자유 발행제 운영의 모델이 될만한 프랑스의 경우, 교과서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으며 사용 의무에 대한 구속 조항도 없다고 한다. 단지 교사가 수업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면 교재나 교구 선택 차원에서 ‘교과서’를 결정한다. 심지어 국어나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등 주요 교과목의 경우에도 교사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프랑스는 그러나 교과서 제도는 자유 발행제로 운영하지만 교육과정만은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관장한다. 초·중등 교육 체계나 교육 목표를 교육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고 교육과정 역시 교육부령으로 통일된 형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채택을 위한 선정 제

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자유 발행제의 모순을 보완한다고 한다. 교과서 채택을 위한 지역 단위·학교 단위·교과 단위의 심의 기구가 작동을 하고 있다. 자유 발행제의 시범 국가라고 할만한 프랑스조차 주요 선진국이 강화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 발행제가 우리에게 아직 시기 상조란 전제 위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제7차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제’이다. 이는 컴퓨터나 예술, 체육, 국제 교육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이 분초를 다투는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필요한 예·체능, 국제화 과목의 경우에 일선 학교장이 예외적으로 시도 교육감의 인정 절차를 생략하고 교사심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내 심의 절차만 거친 뒤, 교과서를 채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컴퓨터 관련 4과목, 체육 종목 관련 22과목, 예술 관련 25과목 등 78개 과목이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운영되고 있다. 즉, 기존의 국정, 검정,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재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소한의 절차만 거친 뒤 이를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 제도의 예외 규정인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통해 교과서 자유 발행제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일선 학교에 일부 부분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다. 24

# 교과서 변혁— 급물살은 또다른 회오리 불러

■ 글 / 주병오 (지구문화사 사장)



## 1. 프롤로그

**참**여 정부가 집권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하고자 하는 바람이 일어 많은 사람들, 특히 30~40 대의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세계가 하나인 글로벌 시대에 정치는 물론 우리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참여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의 일소와 고인물을 물갈이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시민 경제의 여건은 위기 의식을 느낄만큼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까닭은 참여 정부가 타협과 화합에, 또 경제 사회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최근 교육 부문에도 예외 없이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

논의라든지, 수능 문제를 EBS 강좌에서 주로 출제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들어보면, 첫째, 다양한 지식 정보가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폐쇄적인 제도를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획일화가 탈피될 수 있고, 둘째, 창의성이 제고되어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현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원칙 제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 2. 시행에 앞서 그 환경과 시기 파악이 중요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는 고도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무한 경쟁을 위한 고급 두뇌 양성과 다양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필자도 공감하며, 위의 주장에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과서 제도가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제 4 차, 제 5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는 고도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무한 경쟁을 위한 고급 두뇌 양성과 다양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필자도 공감하며…….**

차, 제 6 차, 제 7 차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국정-검정-인정제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컴퓨터 응용 과목이나 어학,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많은 특기 교과목들이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발행되고 있어 자유 발행제로의 이행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그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과 같이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시행에 앞서서 그 환경과 시기가 조성되었는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가. 자유 발행제 시행 국가의 교육 환경  
세계적으로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이며, 인정제와 병행하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국정과 병행하고 있는 뉴질랜드와 스위스 등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들 나라들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와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일찍이 교육과정에도 정착시켜 왔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교육 환경은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학교나 교사들은 수업을 위하여 나름대로

〔표 1〕 세계 각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

구 분	해당 국가
국정제	핀란드, 필리핀
검정제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인정제	미국,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자유 발행제	영국, 스웨덴, 덴마크
검정·인정제 병행	스페인, 러시아
국정·검정제 병행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정·자유 발행제 병행	뉴질랜드, 스위스
국정·인정제 병행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인정·자유 발행제 병행	프랑스
국정·검정·인정제 병행	한국, 일본, 멕시코

\* 김만곤, '교과서 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 『교과서연구』 제 41 호, p. 1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12.

**교육은 그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과 같이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로 할지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시행에 앞서서  
그 환경과 시기가 조성되었는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교구나 교안을 창안하여 교사의 소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있어 교과서는 하나의 지침서 혹은 참고서의 개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중앙 정부가 이 같이 교과서의 위치가 약화된 가운데서도 교육의 목표인 지육, 덕육, 체육, 철학 등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틀을 합리적으로 잘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 나. 우리 교과서의 현상

이에 비추어 우리 교육의 현실은 고등 학교 교육이, 아니 초·중학교 교육마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마당에 교과서를 모두 자유 발행제로 나아간다면 그 많은 교과서들을 검토하는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수능의 출제 출처와 빈도, 문제 자체의 적합성 등의 문제로 자칫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물론, 우리 나라도 6·25 전쟁, 휴전 후 1954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7차에 걸쳐 교육과정을 보완·발전시켜서 왔으며, 일부 분야의 교과서는 이미 자유 발행제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인정제에 와 있다.

또, 그 와중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외형적으로는 디자인에서부터 제작 방식에 이르기까지, 내용면에서는 창의성과 실생활과 연관된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 대폭 실려 제6차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자유 발행제의 선행 조건

#### 가. 시행권자들의 책임 의식 함양

2000년대 초 수도권 및 신도시 고교 평준화 제도는 고등 학교 내 보충 교육을 폐지시켰고, 강남의 사교육을 과열시켰으며, 급기야는 지역 부동산 폭등과 투기로 이어져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다.

고등 학교 의무 교육에 대비하고 과열된 대학 입시 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시행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위에서와 같은 부작용 외에도 일선 교사들의 무력감은 우리 전통의 사도(師道)를 약화시키고 전교조의 활성화를 부채질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EBS 문제도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수능을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는 상당 부분 부합한다 하더라도, 준비마저 덜된 EBS로 획일화된 수능 시험을 대비하게 하는 조치는 다양

[표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 학교 인정 도서 현황

구 분	인정 도서 교과목명	
	인정 도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
교과목	[보통 교과] ·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생활 경제 · 종교 · 생태와 환경 · 진로와 직업	[전문 교과] ·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공업 : 4 과목) · 자료 처리, 전자 계산 실무, 프로그래밍 실무, 사무 자동화 실무, 문서 실무 (상업 : 5 과목) · 축구, 농구, 배구, 무용, 육상 경기, 체조 경기, 수영 경기, 태권도·복싱, 유도·레슬링, 사격, 양궁, 역도, 빙상, 사이클, 골프, 요트, 조정, 볼링, 스키, 펜싱, 배드민턴, 카누 (체육 : 22 과목) ·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미술 이론, 미술사, 디자인, 영상 미술, 무용 이론, 무용사, 문학 개론, 문학사, 문장론, 고전 문학, 현대 문학, 시창작, 소설 창작, 희곡 창작, 연극 개론, 영화 개론, 연극사, 영화사, 화술, 사진 개론, 사진사, 사진 편집 (예술계 : 25 과목) ·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문제, 비교 문화,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 사회, 한국어, 과제 연구, 예능 실습 (국제계 : 21 과목) · 잠사 기술 (농업계 : 1 과목)
계	8	78

화와 자유 경쟁 체제인 세계화 시대에,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또다시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되거나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다.

교육 정책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행에 앞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과장이 국가·사회적 혼란에 더하여 많은 젊은이의 장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 나.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개선 및 공교육의 내실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현행 교과서를 잘 살펴보면 종전 교과서에 비해 확실히 체험형, 탐구형, 학생 자신의 문

제 해결 배양형으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교과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학습 자료를 동원, 재구성하여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공교육을 하고자 하겠지만 우선 현행 대입 전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의 소신과는 관계 없이, 결국 내용 암기나 문제 풀이 위주의 수험 대비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능 시험이 대학 입학 전형을 좌우하는 현행 입시 제도하에서 교과서 발행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우리 나라의 교육은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과 공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선이 받을 맞추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 다. 교과서 전문가 집단의 정기적 연구, 발표 제도화

교과서 관련 단체는 물론 집필자 및 출판사 담당 직원까지를 포함하는 각 영역별 집단의 연구를 의무화하여 세계 각국의 추이와 문화 발전에 따른 CD 등의 부교재 활용, 그리고 인터넷 활용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세미나(발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관련 단체는 교과서 출판 연수원을, 교과서 전문 출판사에는 상설 연구 기구의 운영을 유도하여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에필로그


[표 1]에서와 같이 교과서 발행 제도는 나라마다 그네들의 교육 환경과 특성에 맞추어 신중히 선택한 흔적이 역력하다. 많은 나라들이 의식 교육이나 국민의 화합과 관련된 교육은 물론, 경쟁력이 요구되는 과목 등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 즉 영국의 경우도 학교교육평의회나 너필드 재단 등 전문 연구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서 출판사, 그리고 영국방송공사 등이 경쟁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왔으나 1988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가 ‘교육 개혁 법안(education reform act)’을 제정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부령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각

지방 교육 당국 및 학교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였다가 2000년 8월부터는 또다시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sup>2)</sup>

우리 나라의 고교 평준화 조치는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폐지 내지는 보완 및 개선과 아울러 과감히 자율성을 부여하여 수준별 학습, 특기 적성 교육 등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교과서는 하루 아침에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개혁의 대상이 아니며, 현재 우리 교과서들의 질이나 내용이 확 바뀌어야 될 만큼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회 발전에 따라, 우리의 교육 정책 방향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공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표 2]에서와 같이 이미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의 문턱에 와 있는 인정 도서 교과목들은 자유 발행제가 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 실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은 것은 아닌지? 

1) 김만근, ‘교과서 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 『교과서연구』 제 41 호, p. 15,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12.

2) 같은 책 p. 19

# e-learning 확대 및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모듈식 교재 체제 도입

■ 글 / 김선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책**은 우리의 생각을 형상화된 문자, 사진, 삽화, 만화, 도표 등으로 담아 낸 그릇이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담기는 그릇의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교과서란,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공유하는 물리적인 지식의 공유 장소이며, 교과서 내용은 인간이 일구어 온 창조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담아 낸 지혜의 샘’이다. 최근 교과서의 개념은 단순한 지식 정보 매체로서의 영역을 뛰어넘어, 생각을 자극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영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학습자들에게 ‘흥미롭고, 쉬우며, 창조적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교과서’를, 교사에게는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고, 디자인된 교과서’를 편찬·제공해야 할 것이며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매체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학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들의 자율적 학습 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 매체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웹 기반 직업 교육 훈련의 대두로 인해 이러한 자율적 학습 체제의 진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교육 환경에 적합하고, 학습자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e-learning 교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각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 대학에서 모듈식 교재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지침서가 없으며, 모듈식 교재 개발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번안된 자료는 있으나 개발 과정에 대한 안내서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의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 대학 학생들의 학습자 특성과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학습 동기나 학습 흥미를 유발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경우



도, 참신성이 부족하고, 현장 직무 반영 정도가 낮으며, 문자 중심의 교재 체제여서 잘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 분석을 토대로 학습 내용을 모듈화하여 능력 중심의 교수·학습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교재도 모듈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체제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양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급자 위주의 강의 중심 수업 방법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동기는 매우 낮고 학습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들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수자들이 인지한 학생들의 기초 수학 능력은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 및 수리적 능력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 수학 능력의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인지한 기초 수학 능력은 교수자들이 인지한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반된 조사 결

과는 학생들의 잠재된 학습 역량을 제대로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잠재된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체제 개선과 아울러 다양한 ICT 자료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학습자들과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여전히 학습자들의 수준이나 학습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급자 위주의 교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학습자들과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에 관한 요구 분석 및 문헌 분석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 학습자들의 수준이나 학습 동기 및 학습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 대학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공 과목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서도, 참신성이 부족하고 현장 직무 반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재 자체가 문자 중심의 교재 체제여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기초 수학 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교재의 개선 요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교재는 좀더 쉽고, 간결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단서(읽을거리, 실생활 사례, 생각해 보기, 인물 정보, 탐구해 보기 등)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시적으로 모듈식 교과서의 편집 다자인 체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교재는 좀더 쉽고, 간결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단서(읽을거리, 실생활 사례, 생각해 보기, 인물 정보, 탐구해 보기 등)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1. 표 지

모듈식 교재의 표지는 학습 내용의 구조화를 위하여 대·중·소 해당 모듈명 전체가 표지에 비중대로 드러나면서 가장 강조될 내용인 소모듈명이 부각되어야 한다. 대·중·소 모듈 제목들은 크기와 위치 조정에 의하여 여러 제목들이 제시되는 것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폰트는 고딕 폰트, 교재의 등 쪽에는 짧은 가로 라인으로 전체와 부분 해당 모듈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소모듈 표지 컬러는 순색(red)과 무채색(black)을 대표 색으로 선정한다.

### 2. 타이포그래피 개요 및 교재 사용 안내

개요(소개)와 교재 사용 안내는 표지 뒤쪽에 제시하여 본 모듈 전개와 구분되도록 한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해당 중모듈을 개략, 설명하고 학습 목표를 간결히 제시한다.

### 3. 중모듈 개요 및 평가

중모듈 개요 다음의 펼친 면에는 중모듈 평가(성취 확인)를 위한 내용을 소모듈 평가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시한다.

### 4. 소모듈 속표지 및 목차

소모듈 속표지는 표지의 캐릭터와 이미지를 반복 제시하여 앞에 제시된 중모듈 개요와 구분하며, 해당 소모듈의 시각적 인상이 반복되도록 한다.

### 5. 전체 모듈 구성(표)

전체 모듈 구성을 보여 주면서 이후 교재에서 전개될 모듈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사각형 그리드가 연결되는 형태로 다이어그램을 제작한다.

### 6. 소모듈 학습 목표, 내용, 선모듈 진단

소모듈 소개 페이지, 중모듈에서 해당 소모듈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무채색 박스가 지속적으로 상단에 연결되며 박스의 폭을 좁혀 중·소모듈 진행이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한다.

### 7. 선행 학습

상단의 선행 학습 구성 소개 부분을 통해 선행 학습할 내용이 강조되도록 한다.

### 8. 실습 과제

실제 실습이 시작되는 페이지, 실습 과제의 제목 부분에 캐릭터를 주어 현재 진행되는 실습을 포지셔닝한다. 실습 과정들은 그 진행이 간명하게 단락지어지도록 컬러와 폰트를 활용하여 본문과 구분되도록 한다.

### 9. 평가 및 자기 점검

소모듈 실습 과제의 성취 확인(평가) 및 학습자의 자기 점검, 실습의 제시는 관련 모델링 비주얼이 함께 주어지며, 이어서 학습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표를 제시한다. ㉨

# 오스트리아의 학교 제도와 교과서 제도

## — 학교 제도(Ⅰ) —

■ 글 / 발터 덴서(Dr. Walter Denscher 오스트리아 교육과학문화부)

**본** 원고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Dr. Helmut Böck 대사의 배려에 의해 게재하게 되었다. 그간 Dr. Helmut Böck 대사는 외교 업무에 바쁜 와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의 교과서 제도를 한국에 소개하는 데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자를 선정하고, 또 내용 조직에 이르기까지 저자와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여러 모로 신경을 써 주셨다. 본 원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집필되었으며, 이번 게재 부분은 오스트리아의 ‘학교 제도’를 게재하고 다음 호에는 ‘오스트리아의 교과서 제도’를 게재하기로 한다(편집자 주).

### 1. 의무 교육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국적에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의무 교육은 9년간 지속된다. 어린이들은 공립(주립) 학교나 사립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공립 학교에 다니면 학비는 무료이다.

의무 교육은 만 6세 생일이 지난 후 9월 1일 시작된다. 9월 1일(학년의 시작)부터 12월 31일 사이에 6번째 생일을 맞는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수업을 따라갈 만하면 이르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

다. 의무 교육은 유치원 과정과 함께 시작하거나, 초등 4년 과정(초등학교나 특수 학교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으로 시작된다. 5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초등학교 상급 과정, 실업 학교 과정, 인문 학교 입문 과정이나, 특수 학교 상급 과정으로 연계된다.

9학년은 직업 학교 입학 전 과정, 인문 학교, 기술 학교, 직업 학교나 전문 학교(전문대학)에 다닐 수 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인문 학교나 기술 학교, 직업 학교, 전문 학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2.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

####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그리고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차별 없이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어린이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 제반 기량과 능력을 길러 주는 기본적인 균형 있는 보통 교육(공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몇 개 학년을 한 교실에 두기도 한다. 즉, 학년마다 한 학급을 만들만큼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몇 개 학년의 어린이들을 한 학급으로 묶어 한 교실에서 교육한다는 뜻이다.

1학년부터는 현대 외국어(크로아티아어, 체코어, 영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슬로바키아어나 또는 슬로베니아어)를 학습하는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없이 의무적으로 배운다.

종교 교육을 제외하고는 초등 학교의 수업은 학급 담임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밖에도 특수 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있다. 학생들은 비독일어권 언어를 모국어로 하기 때문에 독일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 가는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과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교사를 배치한다.

#### 나. 특수 학교

특수 학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편해서 초등 학교나 실업 중학교의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아동에게, 또는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직업 세계로의 편입을 준비, 교육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 다. 실업 중학교

실업 중학교는 중등 인문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초등 학교 후반기 의무 교육 과정에 해당된다. 즉, 실업 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4년간 기본적인 보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실업 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에게 직업 세계를 준비시키는 것과 상급 학교의 진학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실업 중학교의 수업은 각 학생의 관심과 기술 능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실업 중학교의 3년차와 4년차에서는 학생들이 한층 더 직업 경험과 전문 경험을 쌓도록 준비시키는 데 더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직업(경력) 안내’ 과목이 개설되고, 회사

에서의 실습 시간 및 교육적인 회사 방문 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각 학생의 능력과 일의 진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실업 중학교는 독일어(모국어), 수학, 현대 외국어 과목에서 학생들을 분반 편성한다. 그리고 능력별로 분반된 학급 간(개별적인) 학생의 이동은 학년이 끝날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기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 라. 직업 학교 입학 전 과정

오스트리아 10대의 약 20 퍼센트는 직업 학교 입학 전 과정(종합 기술 강습 과정)에 다님으로써 의무 교육의 과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 기회는 도제 훈련 과정에 입학하려는 14세, 15세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직업 학교 전 과정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도제 훈련이나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능력, 기량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 마. 중등 인문 학교

중등 인문 학교(일반 중·고등 학교)의 목표는 폭넓고 확대된 보통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학생에게는 표준적인 대학 입학 자격을 주고 있으며,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학교 이후 과정과 전문 대학 코스, 직장에서 보다 전문화된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아 주고 있다.

그러나 중등 인문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수많은 다른 자질과 능력(예를 들면, 근로의식, 협동 능력, 독립심, 책임감)을 기르게 하는 것도 목표에 포함된다.

중등 인문 학교 교육은 전체로 보면 8년간 지속되는데, 초급 과정(5학년부터 8학년까

지)과 상급 과정(9학년부터 12학년까지)으로 나뉜다. 핵심 과목은 독일어, 두 개의 외국어, 역사와 사회, 지리와 경제,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생태학, 심리학, 철학, 음악, 미술, 수공예(초급 수준), 컴퓨터(9등급) 등이다.

중등 인문 학교에는 폭넓고 확대된 보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핵심 교과 교육과정이라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과정은 제반 각종 학교에서 졸업 시험을 치를 때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의무 교과 이외에 학교가 목표로 하는 특별 취지에 입각하여 특정 교과 분야에서 심화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 졸업 시험과 합격증

졸업 시험과 합격증은 상급 학교에서 공부할 자격을 부여하는 졸업 증명서이다. 졸업 시험은 현실적인 학업을 알아보고, 또 자주적으로 학습하는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시험 과목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학생들은 독일어, 수학, 외국어 등 핵심 과목의 필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 3. 직업 기술 고등 교육과정

일반적으로 보통 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 직업 기술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한다. 직업 기술 고등 학교와 직업 기술 전문 학교는 8년의 의무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서 다닐 수 있다. 이러한 고등 학교와 전문 학교의 주요 목표는 개별 학생의 인격을 함양시키고, 높은 수준의 노동의 유동성과 유연성을 가지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비판적 사고, 팀워크, 의사소통 기술, 사회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있다.

#### 가. 기초적인 직업 교육의 구조와 조직

직업 기술 학교에는 실습생에게 일반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파트타임 실습 직업 학교와 직업 기술 고등 학교와 직업 기술 전문 학교가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도제 교육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습생의 회사 현장 교육은 파트타임 실습 직업 학교(직업 학교)의 의무 출석으로 보완된다. 그래서 실습 교육(도제 교육)을 ‘이원 직업 교육 제도’나 ‘이원화 제도(dual system)’라 부른다.

현재 오스트리아 10대의 약 40퍼센트가 의무 교육 이수 후 즉시 도제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실습생 총 숫자는 도제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의 수와 똑같이 1981년 이래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7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중지되고 새로운 실습생 숫자가 다시 증가하였다.

직업 기술 고등 학교와 전문 학교에서의 학교 교육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 \* 엔지니어링 분야의 직업 기술 고등 학교와 전문 학교
- \* 영업(사무) 분야의 직업 기술 고등 학교와 전문 학교
- \* 관광업 분야의 직업 기술 고등 학교와 전문 학교
- \* 패션 및 의류 분야의 직업 기술 고등 학교와 전문 학교
- \* 사회 복지 분야의 직업 기술 고등 학교와 전문 학교
- \* 농학과 임학 분야의 직업 기술 고등 학교와 전문 학교

#### 나. 유럽 연합(EU)에서의 직업 기술 교육에 대한 인식

졸업 시험 합격증과 직업 기술 교육(TVE ;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졸업 증서로 끝맺는 직업 기술 전문 학교는 1990 년대 초 이래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직업 기술 전문 학교는 학생에게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과 일반적인 대학 입학 자격을 줄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내에서는 완전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의 지시 지침(directive 95/43/EC)에 따르면 1995년 7월 20일 현재 직업 기술 전문 학교 및 특수 전문 학교에 의해서 제공되는 졸업 시험 합격증은 유럽 연합의 다른 나라의 전문 대학(전문 학교 졸업 후 다니는 교육과정)에서 받는 졸업 시험 자격증과 동등한 평가를 받고 있다.

#### 4. 오스트리아의 교과서

약 70여 개의 민간 출판사에서 유치원 과정에 필요한 과목부터 졸업 시험에 관련된 과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교의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를 편찬, 발행, 공급하고 있다. 교과서 대금은 사회복지부에 의해 가정 지원 기금에서 지급된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는 교육과학문화부에 의해 검정을 받아야 한다.

교과서 검정 규정(1998년 최종 개정)은 1974년 이래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사들로 구성되고, 교육부에서 4년간 임명한 31개 위원회의 업무 진행을 정한 지침인 셈이다. 이러한 규정은 각 위원회의 책임 영역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초등 학교 위원회가 하나 있으며, 실업 중학교, 직업 학교 입학 전 과정 및 중등 인문 학교를 위한 위원회가 하나 있다. 세 번째 위원회는 직업

기술 학교 및 엔지니어 분야, 영업(사무) 분야, 사회 복지 분야, 농학·임학 분야의 직업 기술 고등 학교와 전문 학교를 위한 것이다.

연령층에 따라 필요하고 다양한 직업 학교와 전문 학교 교육을 충족시키고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과서가 있다.

검정 규정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립 과정과 위원회 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교과서 및 기타 교재 승인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ㄱ. 교과서의 원고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 ㄴ. 교과서의 내용은 학습 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 ㄷ. 교과서의 내용은 동일 연령층의 능력과 흥미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ㄹ. 텍스트와 삽화는 교과목의 기준과 국내(또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고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 ㅁ. 교과서 내용은 오스트리아 및 유럽의 법률과 특수한 상황, 학생의 각종 직업 전망, 학생의 주변 상황과 합치되어야 한다.
- ㅂ. 교과서 내용은 민주적인 교육의 원칙과 일치해야 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ㅅ. 사용 언어는 정확하고 학습자의 연령에 적합해야 하며, 텍스트의 시각적, 그래픽적인 지원 요소와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ㅇ. 교과서 내용은 텍스트의 길이, 삽화의 수와 질, 판형과 제본 등이 적절해야 한다.
- ㅈ. 교과서 내용은 남녀 평등에 기여해야 하며, 남자와 여자는 사회에서 동등한 파트너라는 교육으로 지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검·인정을 위해 원고를 제출한다. 원고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아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인정은 평균 5년간의 교육과정 기간만큼 유효하다.

모든 보충 교재가 다 검·인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책 이외에도 교과서 목록의 부록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충 유인물, CD, CD-ROM이 있다. 한편, 검·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아닌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자료들의 목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목록 중에서 필요 교재를 선택하는 일 외에도 여러 학교에서는 교과서 예산의 15 퍼센트를 이러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보충 교재(인쇄물, 시청각 교재, 전자 교재 또는 게임)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시청각 교재 및 전자 교재는 검·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보충 교재를 평가하고 구입하는 것은 학교(교사, 학부모, 학생)가 결정한다. 정보를 얻는 매체는 대부분 시청각 교재와 전자 교재 출판사의 카탈로그이다. 그러나 전자 교재를 위한 계간지도 있다(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수업을 위해 편찬한 잡지).

보충 교재가 정부에 의해 검·인정을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되며, 여러 학교에서는 검·인정을 받은 보충 교재 중에서 학습 내용이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한다.

대체로 소규모 교재 출판사에서는 전문가 그룹에게 원고의 평가를 부탁하고, 출판 이전에 필요한 수정을 하며, 검·인정 절차를 밟는다. 검·인정된 교재의 선택은 근본적으로 학교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웹 사이트 [www.bmbwk.gv.at](http://www.bmbwk.gv.at)(교육, 학교-

서비스 센터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주소-교과서 대책 활동 부문에서)와 [www.sbx.at](http://www.sbx.at)에서 모든 책과 CD, CD-ROM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2003/2004년 이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보충 교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교과서의 검·인정 제도는 전국적으로 유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검·인정 업무에 대해 저작자와 편집자, 출판업자의 노력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검·인정이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교사에게 맡겨진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학습자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핵심적인 교재들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일과, 교과서 목록에 추가된 보충 자료 중에서 골라 낸 자료 또는 교사들이 다른 출처로부터 얻거나 스스로 개발한 다른 교재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중앙 집권화된 제도로는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운 다양화와 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재정과 교육과정면에서 현저하게 교육 자치가 확대된 이유이며, 이 밖에도 교과서와 교재를 발전시킨 중요 요소이기도 하다.

교과서와 기타 보충 교재의 배포는 앞에서 언급한 출판업자와 정부가 협력하여 도서 판매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러 학교는 도서 판매업자와 출판사에 온라인으로([www.schulbuchaktion.at](http://www.schulbuchaktion.at)-거의 6000여 개 학교를 위한 약 9000여 종의 교과서와 다른 보충 교재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주문서를 보내고, 교과서는 특정 학교 도서 가격의 10 퍼센트를 부모들이 지불한 다음에 학교에 배포된다. ㉔



# 제 5 차 검정 교과서 제도 개관

## I. 들어가는 말

**제** 5 차 교육과정기는 1987년 3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약 5년간이다. 이 시기에는 우리 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 및 88 서울 올림픽의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으로 우리 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향상된 때이다. 또한 1988년에 출범한 제 6 공화국 정부는 정치적 정통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던 제 5 공화국의 단절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제 6 공화국 정부는 문교부 장관 직속으로 중앙교육심의회를 발족시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제안된 주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대통령 직속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와 국무총리 직속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두어 교육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제기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조정을 보면, 2000년대에 살아갈 다음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 크게 강조되어야 할 점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및 고도의 창의력을 갖춘 사람을 길러 내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과 방법이 거기에 알맞게 개편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책 제안으로서는 “획일화된 교과용 도서의 편찬 정책을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쟁에 의한 자료의 질 개선과 다양화를 도모한다.”고 제시하였다.<sup>1)</sup>

제 5 차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① 기초 교육의 강화, ②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③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강조,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것은 정보화, 국제화, 다양화되는 고도 산업 사회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개정하였다. 따라서, 새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제 5 차 교육과정기 1 종 교과서의 특징은 통합 교과서(예를 들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 **허 강**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등) 편찬, 보조 교과서 발간(도덕의 ‘생활의 길잡이’, 산수의 ‘산수 익힘책’ 등 7종) 및 지역화 교과서 개발(4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각 시도 지역에 알맞게 편찬, 발행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사상 처음 시도되었다.) 등을 들 수 있다.

## Ⅱ.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검정 공고를 두 번 하였다. 한 번은 1987년 4월에 중학교 2종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해서, 두 번째는 1988년 4월에 고등학교 2종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해 실시하였다.

### 1. 검정 교과서 개편 및 결과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서의 합격본 종수는 제4차 교육과정기의 5종류 이내 규정에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고등학교 검정 대상 과목은 8종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교과서 검정 제도에 대해서 2종 교과서 저작자나 출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한 결과, 검정 도서 합격 종수가 1988년 8월 22일자로 교과서 규정(제19조)이 개정되어 5종류 이내에서 8종류 이내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이들의 주장은 1종 교과서의 종수를 축소하고 2종 교과서를 확대하자는 것과 2종 교과서 합격본의 종수 제한을 철폐하고, 또 2종 교과서의 검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한편, 2종 교과서의 체제를 저작자의 독창적인 생각으로 참신한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으나 문교부가 제시한 ‘집필상의 유의점’ 등의 규제 때문에 1종 교과서와 크게 다른 다양한 교과서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2종 교과서는 교과별로 2~8종이 합격되었지만 내용 등의 측면에서는 크게 다른 경우를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부 출판사는 교과서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합격 후 이에 따른 참고서 판매에 관심이 더 크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으며, 또 출판사 간에 과다 경쟁으로 국가의 경제적 낭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의 2종 도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교과목 수가 확대되고 교과목당 합격 종수가 5종류에서 8종류로 증가한 것(고등학교만 적용) 이외에는 편찬 절차(검정 절차)상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합격된 2종 도서의 유효 기간은 최초 사용 학년도부터 5년간으로 하고, 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검정 절차는 제4차 교육과정기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한편, 집필 기간이 짧은 것은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었다. 즉,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1988년 4월에 검정 공고를 하고 교과서 심사본 제출이 1989년 1월로 되어 있어 공식적인 집필 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교과서 집필자나 출판사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라 하여도 이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교과서는 졸속 집필에 졸속 제작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과서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정 심사에 대하여서도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는 하였다. 검정 심사 기간이 보통 1개월 정도인데, 교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심사본이 많은 경우에는 60여 종에 책 권수로 3개 학년을 합해 180여 권이 되는 것을 6인의 심사 위원이 이 기간 동안에 정확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정 시기 문제, 검정 심사 방법 문제, 합격 종수의 제한 문제 등 검정 심사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만 질 높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2.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검정 교과서 제도는 ‘먼저 교과목의 검정화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또 검정 업무 중 집필 기간이 길어야 하며, 검정 기준이나 검정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행 교과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과서 심의 및 검정 과정의 빈약성, 채택과 공급을 둘러싼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조리 등을 없애 양질의 교과서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광복 후, 우리 나라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로 인해 교수·학습에 끼치는 저해 요인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더구나 현행 교과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한정된 쪽수에 압축된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고 설명이 불충분해 보조 학습 참고서가 범람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현행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교과서 개발 예산의 영세성 ② 집필 및 검정 기간의 촉박, ③ 검정 심사 위원의 전문성 결여, ④ 합격·불합격의 1회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검정 제도가 심사 기능 위주로만 운영되어 출원자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권고·촉구할 수 없고 불합격본의 저자들은 이의 신청조차 못 하도록 경직돼 있다.

문교부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 2종교과서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2년 6월에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교과서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교과서에 대한 종합 연구 기능을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문교부는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심사 횟수도 늘리며,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부분적인 오류를 수정한 후에 다시 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는 시기 상조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집필상의 유의점

제 4차 교육과정기의 ‘집필상의 유의점’은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것과 그 형식상 차이가 없다. 다만, 편찬 방침(제 5차 때는 기본 방향)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제 4차 때는 ① 국민 정신 교육, ② 자율 학습 강화, ③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 ④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들고 있으며, 제 5차 때는 ① 교육과정 구성의 역점 사항, ② 교과서의 기능, ③ 자율 학습 강화, ④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 ⑤ 체제와 내용 편집의 창의성, ⑥ 일반 지침과 교과 지침에 따른 편찬 등이다.

여기서 ① 자율 학습의 강화, ②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 ③ 교육과정 정신 구현 등은 제 4차와 제 5차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제 5차의 특징적인 것은 ① 외형적 체제와 내용 편집

을 창의적으로 개선한다, ② 주된 학습 자료로서의 교과서의 기능을 제고시킨다이다. 이것은 교과서를 기획·편찬·발행하는 데 있어 ‘교과서답게 꾸미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외형 체제와 편집을 과거에 비해 강조한 것은 시대적 발전도 있으나 교과서 당국의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 지침(일반, 교과별)은 제 4 차에 비해 새롭게 추가되었거나 변경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제 4 차 때 제시한 ‘단원 전개 모델’도 그대로 제시되었고 지침 항목이나 내용에도 변화가 없었다. 이런 점에 있어 제 4 차 때와는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필상의 유의점’ 항목 중 ‘표절의 배제’가 검정 때마다 그 성격에 대해 해석의 혼란이 있었는데 표절에 대한 해석상 여러 이론(理論)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편찬인지 창작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출판사 및 저자 간에 상당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밖에도 쪽수의 개념에 대해, 즉 문교부가 제시한 기준 쪽수가 속표지부터 판권까지인지 머리말부터 판권까지인지, 본문만인지, 화보는 빠지는 것인지 등에 대해 해석상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해석상의 혼란은 제 6 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업무 때부터 교육부에서 유권 해석을 서면으로 제시해 준 일이 있어 교통 정리가 되었다.

#### 4. 검정 심사 기준

제 4 차 교육과정기 때의 ‘2 종 교과서 심사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때에도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5 조(검정 기준)에는 ‘2 종 도서의 검정 기준은 교과목별로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제 16 조(검정 방법)에는 ① ‘2 종 도서의 검정은 1 차 심사와 2 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 차 심사는 제 15 조에 규정에 의한 검정 기준에 따라 평점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5. 검정 교과서의 채택

문교부는 2 종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 때에 ‘검정에 합격한 후 저작권 및 발행권 행사에 있어 문교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다는 동의서를 검정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도록 제시한 바 있었다.’ 다음의 동의서는 교과서의 채택 경쟁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문교부가 징구하는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

문교부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2종교과서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2년 6월에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교과서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교과서에 대한 종합 연구 기능을 살려 나가기로 했다.

”

[출판사용] 본인은 2종 교과용 도서 저작자와 체결한 다음, 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한 문교부 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공동 인쇄 발행에 동의합니다.

[저작자용] 본인 등은 다음 교과용 도서와 이를 이용한 학습 자료의 저작권 및 발행권 행사에 있어 교육 부조리 제거와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한 문교부 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배할 때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 Ⅲ. 맺는 말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제 4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다만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교육과정 정신에 부응하는 교과서 편찬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1종 교과서의 편찬상의 특징은 연구 개발형의 지속적인 편찬과 국민 학교의 통합 교과서 편찬과 보조 교과서 발간 및 지역화 교재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2종 교과서는 제 4차 교육과정기 때에 비해 2종 교과목 수가 확대되었고, 편찬 체제 중 외형 체제와 내용 편집에 창의적인 측면을 강조한 점에서 시대적 발전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 개발한 검정 교과서가 집필 지침에서 의도한 바 교과서의 구조 개선이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조직 등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본 방향 중 ‘주된 학습 자료로서의 교과서의 기능을 제고시킨다.’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교과서관을 새롭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과서 기능 제고’는 교과서의 일반 지침 항목 중 단위 전개 모델을 중요시한 측면이 있으며, 제 4차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채용한 것은 교과서의 구조 개선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제 5차 교육과정기에는 2종 교과서와 관련된 공통적인 것으로 ① 저작 기간이 짧다, ② 심사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 또, 심사 기준의 미공개로 불투명 행정이다, ③ 합격 종수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심사 기준은 ‘집필상의 유의점’ 중에서 일반 지침 항목과 교과별 항목이 심사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의혹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현상이나 변동은 우리 나라 교과서 변천사에 기록될 내용들이며, 제 5차 교육과정기는 제 4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검정화가 확대되었고, 교과서 편찬에 자율 학습과 외형적 체제 및 내용 편집 등에 새 방향이 설정되어 추진된 시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제 5차 교육과정기는 ‘확장기’라 명명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22

<1969~1977년 수산·해운 편수관>

1) 정책 제안 중 2종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① 2종 교과서 대상 과목을 확대하며, 종수의 규제는 완화한다. ② 검·인정 업무는 일정 주기를 두는 현행 제도를 피하고 항시적·통상적으로 할 수 있게 행정 체제를 개방한다. ③ 참고서가 필요 없게 교과서를 편찬하고, 필요시에 부교재를 함께 개발한다.

통일 「북한의 전환」 북한 실체 인정

I. 통일 교육의 전환

제 5 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속 되어 온 반공 교육을 통일·안보 교육으로 전환하여 그 동안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강점해 온 ‘북한 공산 집단’을 ‘북한’으로 호칭을 바꾸어 그 실체를 인정하고, 호칭에 걸맞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편찬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이 통일·안보 교육이 제 6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통일 교육으로 전환하여 ‘북한’을 명실상부하게 함께 번영해야 할 동반자, 민족 공동체로 기술하게 된다.

사실은 1987년에 고시된 제 5 차 교육과정에도 ‘북한 공산 집단’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1988년 7월 7일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이 발표되자, 제 5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던 교육부와 연구 개발 기관 관계자, 편찬심의회 심의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도덕, 윤리 교과서에서 ‘북한 공산 집단’을 ‘북한’으로 기술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북한’은 ‘남한’과 대등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고 대결의 상대가 아닌 대화의 상대로 바뀌어 비판의 강도가 크게 낮아진다. 그러니까 북한의 호칭은 ‘북한 괴뢰 집단’에서 ‘북한 공산 집단’으로, ‘북한 공산 집단’에서 다시 ‘북한’으로 변화되고 교과서 내용도 호칭에 맞게 그때 그때 수정 편찬되었다.

제 5 차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 교과서(5-2) 편찬시, 제 4 차 때의 ‘이승복 어린이’ 제재는 그 내용이 북한 공산당의 만행을 너무 상세히 기술, 지나치게 적개심을 고취하여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니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이승복 어린이’의 내용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 이승복 어린이의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 조작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완전 삭제하지 않고 제재를 ‘통일붕’으로 바꾸어 소재재로 다루기로 하였다. ‘통일붕’은 조카와 삼촌이 등산하는 과정에서 ‘이승복 기념관’을 내려다보며 이승복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 편수 행정의 발자취 (영인대학교 겸임 교수)



이와 같이 제 5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 고취보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통일 의지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편찬되었다. 참고로 제 4 차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 교과서(5-2)와 제 5 차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 교과서(5-2)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변화의 정도를 알 수 있다.

[표] 국민 학교 5-2 도덕 교과서 비교

구 분	제 4 차 교육과정(1984)	제 5 차 교육과정(1990)
제 재	이승복 어린이	통일봉
소재재	· 공산당이 싫어요 · 공산당의 잔인성 · 나의 결심	· 이승복 기념관 · 저 높은 봉우리를 향해서
연구과제	·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다.”고 말한 까닭을 말해 봅시다. · 무장 공비의 만행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북한 공산당이 잔인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북한 공산당의 잔인성을 알 수 있는 다른 사례를 찾아봅시다. · 북한 공산당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 이승복 기념관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적 교훈을 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삼촌의 산을 오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지금까지의 우리의 통일 노력을 조사해 보고 그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제 5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남북 관계를 대결 관계보다는 동반자 관계, 함께 번영해야 할 민족 공동체로 인식하고 서술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비판적 시각이 초·중·고등 학교 교과서 곳곳에 보인다.

그리고 제 4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2 학년에서 지도하던 ‘공산 사회 현실’을 제 5 차 교육과정에서는 3 학년에서 지도하도록 하였다. 일선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더니 ‘공산 사회의 현실’ 단원의 내용이 어려워 3 학년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 3 학년에서 지도하였던 ‘민족 통일 문제와 북한의 현실’은 2 학년에서 지도하도록 편찬하여 일선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 Ⅱ.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이전까지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로 규정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지도하였다. 따라서, 북한을 소련의 괴뢰 집단,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



접한 공산 집단으로 기술하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는 북한을 선의의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상호 비방 중지,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어 북한을 대결의 상대인 동시에 대화의 상대로 시각을 전환하게 된다. 그리하여 교과서에서는 ‘북한 괴뢰 집단’이 ‘북한 공산 집단’으로 호칭이 전환되기도 하였으나 김일성 우상화, 반민족적인 공산 체제, 북한 실상 등 지도 내용은 여전히 비판적이었다.

1982년 5월에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김일성 과다 언급에 따른 역작용과 김일성 신격화 비판의 역작용을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그 때까지 교과서의 통일·안보 내용이 지나치게 경직된 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화 시대의 반공 논리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1988년에는 ‘7·7 대통령 특별 선언’이 있었다. 이 선언은 남북한 관계를 대결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 나아가서는 함께 번영해야 할 민족 공동체 관계로 규정하고, 자유·민주·평화·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 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하여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함께 열 것을 제창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 간에 교류와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대결 외교를 종식시키는 등 통일 관련 정책을 선언하였는데, 북한의 노선이나 호응 여부에 관계 없이 우리가 먼저 열고, 풀고, 도움으로써 실천을 수범하겠다는 일방적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특별 선언으로 제 5 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전술한 대로 ‘북한 공산 집단’이 ‘북한’으로 호칭이 바뀌고 북한을 함께 번영해야 할 민족 공동체로 규정하고 지도 내용도 이에 부응하도록 편찬하였다.

‘북한 공산 집단’이라는 호칭이 ‘북한’으로 바뀌어 그 실체를 인정함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기도 했으나 일부 비판적 시각은 제 6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편찬 사용할 때까지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1995년부터 사용하게 된 제 6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동반자 관계로 교과서 내용이 크게 변하였다. 그리고 2000년 ‘6·15 남북 공

“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는 북한을 선의의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상호 비방 중지,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어 북한을 대결의 상대인 동시에 대화의 상대로 시각을 전환하게 된다. 그리하여 교과서에서는 ‘북한 괴뢰 집단’이 ‘북한 공산 집단’으로 호칭이 전환되기도 하였으나 김일성 우상화, 반민족적인 공산 체제, 북한 실상 등 지도 내용은 여전히 비판적이었다.**

”

동 선언’ 이후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된 고등 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라고 김일성 주석이라는 호칭을 인용 부호 없이 기술하기에 이른다. 괴뢰, 독재자로 표현되기도 했던 ‘김일성’을 ‘김일성 주석’으로 표현한 것은 시대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냉엄한 것인가를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 Ⅲ. 맺음말

제 5 차 교육과정에서 반공 교육을 통일·안보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교과서에서 ‘북한 공산 집단’을 ‘북한’으로 호칭을 바꾸어 그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미래 지향적으로 구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발전적인 변화이다.

통일이 7 천만 민족의 번영을 위한 당위적 과제라고 한다면 안보는 우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 필요라는 관점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제 5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과 공산 체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비판 내용을 수록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족 공동체 의식과 통일 의지를 함양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통일 의지를 키우기 위해 남북한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좋은 한국’, ‘나쁜 북한’으로 절대 우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적 비교 우위를 강조하려고 노력하였다.

‘김일성 주석’으로 교과서에 기술할 정도로 변화된 통일 교육 시각에서 제 5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통일·안보 교육 내용을 보면, 진부한 면이 없지 않으나,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아서는 획기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변화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다. 24

〈1980~1996년 도덕·윤리 편수관, 사회 과학 편수관, 편수국장〉

“

통일이 7천만 민족의 번영을 위한 당위적 과제라고 한다면 안보는 우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 필요라는 관점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제 5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과 공산 체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비판 내용을 수록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족 공동체 의식과 통일 의지를 함양하도록 하였다.

”

# 수학과 교육과정과 편수 행정

## I. 서 론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국가의 교육 방향과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일이다. 제 5 차 수학과 교육과정과 편수 행정에 대해서 그 당시 근무했던 편수관으로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심 고심하다가 보니 벌써 보름이 지나가 버렸다. 아마도 그 당시 각 교과 편수관들은 지금의 필자와 똑같이 거의 홀대당했다는 느낌과 그 때의 나쁜 감정이 자꾸 되살아나 생각하기도 싫은 추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제 5 차 교육과정기와 제 6 차 교육과정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까지의 교육부 편수 행정의 실패는 전문 집단의 인사 정책이 정치화에 기인하여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교육부의 편수 행정은 퇴보의 길을 연속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되었는데 제 5 차 때에는 내부에 있는 전문 편수관들의 사기를 꺾고, 권력 상부층에 있는 코드 인사가 교장 중임제와 맞물려서 편수의 편자도 모르는 아무 경험과 연구가 없는 일반 교육 행정가가 편수 전문가직으로 대치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를 생각하면 문득 ‘새들의 노래 자람’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즉, 어느 날 새들이 모여 노래 자람을 하였는데 심사위원은 황새이고 선수는 빠꾸기, 부엉이, 뜰부기가 출전하였다. 노래가 끝나고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청중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1 등에 뜰부기, 2 등에 부엉이, 3 등에 찌꼬리로 결정되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청중이 심사 기준을 말하라고 항의하니 심사 위원인 황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뜰부기는 대단히 발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꾸기는 발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목소리가 고와서 새답지가 않습니다. 우리 새들의 세상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각설하고, 그 당시에 필자는 수학과 편수관으로서 수학 교육

■ 필자 / 김진학 (서울아산병원내과 과장)



의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수학은 수학 자체의 학문적인 중요성도 있지만 과학과 기술의 언어로서의 역할이 크다.’라고.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도 그것을 전수하는 언어가 없으면 그 당대에 그치고 만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 나라 역사만 보아도 세종 대왕 시대에 발달한 과학 기술이 전수되지 않은 것은 수학이라는 언어가 빈약했기 때문이라는 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일찍이 나폴레옹(Napoléon, I. Bonaparte)은 “수학은 국력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화이트도 말하기를 “기술자의 배후에는 화학자가 있고, 화학자의 배후에는 물리학자가 있으며, 물리학자의 배후에는 수학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든 과학 및 기술의 배후에는 수학의 공헌이 지대함을 말하고 있으며, 요즈음 기초 과학으로서 수학을 중시하는 데에도 공헌이 지대함을 말해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 5 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이슈(issue) 및 문제점이 됐던 것과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의 편수 행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Ⅱ. 제5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이슈 및 문제점

제 5 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내용의 분량 및 수준, 지도 방법, 평가 방법 등에서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를 향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와 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할 필요성과 그 당시 수학 교육에 관한 국내외의 정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정,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1. 외국의 수학 교육의 동향

가. 미국 :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수학을 11 년까지 의무화하여 문제 해결, 추론, 개념의 통합화, 계산기 및 컴퓨터의 활용 등을 강조하는 수학 교육으로 개혁을 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전국수학교사협의회(NCTM)가 제시한 학교 수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의 기준, 시카고 대학교의 UCSMP(the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mathematics

“

일찍이 나폴레옹(Napoléon, I. Bonaparte)은 “수학은 국력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화이트도 말하기를 “기술자의 배후에는 화학자가 있고, 화학자의 배후에는 물리학자가 있으며, 물리학자의 배후에는 수학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

project) 등이다.

나. 영국: 영국에서는 1989년 3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국회가 국가 교육과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교육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의 교육 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영국의 국가 수학과 교육과정은 14 개의 성취 목표와 각 목표에 대한 10 개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다. 일본: 일본은 문부성이 통일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중앙 집중형으로, 1989년에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시켜 초등 학교는 1992년부터, 중학교는 1993년부터, 고등 학교는 1994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본은 정보화, 국제화, 가치관의 다양화, 핵가족화 등과 그에 동반되는 학생들의 생활이나 의식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인간화, 정보화, 개성화, 국제화를 표방하였다.

## 2. 제 5 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이슈와 문제점

가. 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지도 내용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개정

기초 교과, 도구 교과로서 수학의 초보적인 지식 습득 및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나.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수학 내용을 정선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강조되거나 도입되어야 할 내용으로 어림셈, 알고리즘, 이산 수학, 수치 해석, 수학적 사고력 문제 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다. 수학적 지식과 기능의 활용과 문제 해결력을 강조

수학의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밀접시키고 활용을 크게 할 것인가? 수학 과목을 좀더 재미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을 어떻게 빨리 터득시킬 것인가?

라.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강조

마. ‘여러 가지 문제’ 단원의 처음 도입

종합적인 문제 해결의 내용 및 지도 전략을 학년별, 학기별로 위계를 어떻게 만들어 도입할 것인가?

바. 우리 주변 생활과 다른 비현실적이며 가공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란

구조주의에 입각한 지나친 학문 위주의 수학 교육에서 점차로 인본주의 수학 교육으로 전환시키고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를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계발할 것인가?

사. 초등 수학에서 가공과 현실, 비합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의 논란

수학도 그 자체가 가공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인가? 수학의 세계는 합리적이란 점과 합리적이어서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아.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 체재의 구성과 형식에 관한 논란

제 1 차에서 제 4 차 교육과정에서의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 체재와 내용 구성은 교육부 고시로 공포되며 법적인 문서의 효력을 갖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 체재 구성에 대해 그 형식을 시대별로 비교, 분석하여 보고 외국의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

### Ⅲ.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의 편수 행정

교육부 편수국의 인적 구성은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는 교과 전문가인 편수직과 교과서의 발행·공급 업무를 맡는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왔다. 사실상 각 학교급별 담당 교과 전문가인 편수관에 의해서 우리 나라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는 교육부의 중대한 업무가 수행되어진다고 보면 된다.

편수직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제 5 차 교육과정기인 1980년대 후반기가 편수국의 편수 담당 전문직이 제일 활발하게 자기 전공을 살려 편수 업무에 충실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관련 교과의 학회나 연구회에서 세계적인 교육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초 연구 및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교육부의 기구 개편설’과 ‘편수 전문직의 물갈이설’이 구체화되면서 편수 전문직은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편수관들이 자기 장래의 신분상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으며, 편수국의 전문직은 차츰차츰 전문 인력의 축소, 비전문직화로 치닫게 되었다.

다음은 1990년 전반기의 제반 편수 상황과 1980년대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중대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1. 인사가 만사, 편수 전문직의 몰락, 편수 행정의 공백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 행정의 잘못이 편수 행정을 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더 큰 잘못은 지금까지 고생했던 편수관을 아무렇게나 핑개쳐버리고 ‘팽’시켰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당시의 교육 전문지와 신문에 잘 나타나 있다.

1994년 8월 29일 모 교육 전문지의 제 1면 톱기사로 ‘편수직만 당한 날벼락 인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 달 말로 예정된 교육부 편수국의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곳곳에서 우려와 의혹의 소리가 높다. 내년에 사용할 초·중학교의 새 교과서 작업이 한창인 때에 편수국장부터 흔들려 4 명의 장학관 중 3 명이 교체되고, 국어, 수학, 과학, 기술·공업 담당 등 주요 과목 전담 연구관급 편수직이 쫓겨 나가야 할 판국이라 편수 업무 자체가 일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다. 이에 편수 업무와 관련이 깊은 학계의 반응은 ‘지진 만난 꼴’이라며 편수직의 물갈이 인사는 시기 선택이 안 좋은 때라고 걱정한다. 교육부에 들어온 지 10 년이 넘는 전문직은 나가 달라는 것이고 그것도 하필 편수직부터 시작되는 것에 ‘억울하게 느낄 뿐’이라고……편수 업무 자체의 특성이 지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10 년 정도 경험을 쌓아야 노하우가 쌓인다.’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직의 인사가 무서운 결과로 나타날 것에서 새로운 교훈이 발생할 소지가 깊다고 내다 봤다. 거두절미하고 교육 전문직에 대한 인사는 즉흥적 발상에다 성급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첩칙이다. 더구나 사전 치밀한 준비도 없이 사람만 바꾸는 것으로 끝날 수 없음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이번 편수직 교체 등 물갈이 인사는

학기 중 실시보다 내년 초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당사자들에게도 진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다.”

위와 같은 기사 이외에도 일간지에서 교육부 편수국 ‘물같이 說’이라는 제목으로 편수국의 대폭 인사 이동을 예고하고 있었다.

“……편수 경력 10년 이상된 편수관들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지난 1977년 교과서 채택 비리로 편수국 인원이 전원 교체된 이후 최대 규모로 대폭 인사를 추진 중이다.…… 갑작스러운 이런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후임 편수관들은 교장 임기제와 관련된 대부분 50대 초반의 교장, 교감들로 임용될 것 같다.”

## 2. 교과서 정책에 대한 개선 연구 및 관계 법령의 개정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은 그 당시의 교과서가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식 압축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학생 스스로 공부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지적에 있다. 또한 교과서의 판형, 쪽수, 색도 등 체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곤란하며, 검정 합격 종수의 제한(교과목당 8종 이내)으로 상대 평가에 따른 강제 탈락과 검정 및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경쟁을 통한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제작, 발행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을 개방화한다는 것이었다.

## 3. 국가 정책 과제에 대한 수학과 교육과정 및 논란

- 교과 명칭의 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 국민 학교의 교과 명칭을 제 5차 교육과정부터 ‘산수’에서 ‘수학’으로 바꾸자는 한국수학교육학회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학 편수 담당자는 즉시 기초 연구를 하였다.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전국 교육 대학 교수와 학교 현장 교원들로부터 설문지 조사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대 다수가 고쳐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수학하면 학문적인 냄새가 나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딱딱한 느낌이 난다는 정치적 해석에서 최종 결재 단계에서 좌절이 되었으며 차기 제 6차 교육과정 개정

“

그 당시의 교과서가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식 압축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학생 스스로 공부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지적에 있다. 또한 교과서의 판형, 쪽수, 색도 등 체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곤란하며, 검정 합격 종수의 제한(교과목당 8종 이내)으로 상대 평가에 따른 강제 탈락과 검정 및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기도 하였다.

”



시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말았다.

- 국제 단위계(SI 단위)의 쓰기 규정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 : 국제 단위계(SI;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의 시초는 1790년경 프랑스에서 발명된 미터계이며, 1875년 17 개 국가가 이 협약에 조인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미터계는 사용 분야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단위가 생겼는데 그 예가 1881년 과학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CGS 계이며, 1900년경 실용적인 미터, 킬로그램, 초의 MKS 계에 바탕을 두어 행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산수책에 나타난 단위 기호 쓰는 방법은 위법이었다. 앞으로 a, ha 의 단위도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하며 Cal, K와 같은 단위도 모든 교과에서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과학기술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연수를 하도록 하였다.

#### 4. 세계 각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의 이슈와 문제점 등

- 미국의 경우 : 미국 학생의 80 % 가 8 학년을 마치기 전에 대수를 배우지 않아 그들이 고등학교에서 해석학 같은 상위 내용을 이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등한 여론에 미국에서는 1989년 4월 NCTM에서 발표한 학교 수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이 나오자 미국의 거의 모든 교사 단체와 과학 단체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1990년 연두 교서에서 부시 대통령도 2000년까지 미국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실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 일본의 경우 : 일본도 198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보면 초·중학교에서 수학 교과목의 수업 시수를 획기적으로 주당 평균 1 시간씩 증가시켜 놓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정리하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학에서의 수량 관계나 도형에 관한 수학적 개념, 논리적 사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태도는 과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과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학과 학업 성취도 국제 평가 대회에서 한국이 우승 : 1987년 교육 성취도 국제 평가에서도 참가국 17 개국 13 세 학생의 수학 평가에서 한국이 1 위, 미국은 12 위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학생은 2 위를 하여 모든 기초 영역에서 미국 학생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이런 이후에 미국의 교육 연구소에서 한국의 수학 교육이 왜 그리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는 지금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패한 교육 정책을 무조건 뒤따라가 보고 실패 경험을 가지려는 모습을 볼 때 한심할 때도 많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지속시켜야 된다.

#### Ⅳ. 결 론


제 5 차 교육과정기에 편수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어 우리 나라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더욱 정확히 진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고위 교육 정책 결정자들이 인사 행정을 잘못해서 교육의 본질이 크게 흔들렸던 사례를 남겼다고 본다.

필자는 1994년 교육부 편수국에서 국립평가원 독학사부 전공과정실의 연구관으로 갑자기 전출 당할 때, 편수 전문직 생활을 떠나면서 얼마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는지 지금도 떠오르곤 한다.

1982년부터 1994년까지 12 년간 교육부 편수관을 하면서 10 명의 장관을 모셨는데 그분들 대부분은 취임 초기에는 “편수국은 교육부의 핵이다. 교육의 방향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만드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지원을 잘 해 주겠다.”고 대부분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 편수의 전문성은 이 분야에 비전문가인 장관님들도 대충은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장관직을 그만두실 때에는 “미안하다. 다른 일로 너무나 바쁘고, 쫓겨다니다 보니 교육의 본질을 다루는 편수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 같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이 많았다.

열 분 중 한 분은 3 년 이상 장관직에 있었으니 대개는 평균 1 년 미만의 장관직 재임이라고 볼 수 있다. 크나큰 현안들이 있으며, 온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계를 이끌고 행정하시다 보면 마음은 두었으나 도움을 못 주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 편수관들은 피곤한 마음을 달래고 고마움을 느끼곤 했다.

편수 전문가는 관련 학회에 연구가 많은 우수 교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장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공채를 하여야 하며, 장기간 근무 후에는 최소한 ‘땡’을 시키지 말아야 하고 적절한 근무지를 알선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적성에 맞지도 않는 사람이나 관련 교과 활동이나 연구도 없는 사람이 편수 전문직에 우두커니 앉아 학교 교장으로 나갈 생각만을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물론, 교과 편수관도 자기의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연구물과 연구 발표의 실적을 쌓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 자체 연수나 연구물을 낼 수 있으면 좋겠고,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 소속 교과 학회를 통해서 연구물을 내거나 발표회에 동참하며 같이 어울리면서 세계화 시대에 각 나라의 동향과 학문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느 기관에서든지 지금부터라도 나라를 지키는 공군의 파일럿을 육성하는 정신으로 편수 전문가를 육성하고 확보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은 확실한 신념을 가진 교육 전문가만이 이 나라의 교육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 5 차 교육과정 때의 편수 전문직의 인사 행정이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이다. 

〈1982~1995년 수학과 편수관〉

# 공업 교과서 편찬이 어려웠던 일들

## I. 공업 교과서 편찬·발행으로 산업체 기술 인력 양성에 기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의 경제 개발 추진으로 고  
등 학교 수준의 기술 인력 양성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던  
시기였다. 1980년대에는 과거 기술 인력의 대량 양성에서 질적  
양성으로 정책이 변경되었고, 문교부(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제 5 차 교육과정에서도 과거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에서 학교 중  
심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었던 시기였다.

이처럼 기능 인력의 집중 양성에서 문교부의 역할은 공업 고  
등 학교 학생들의 기술 교육에 필요한 행정, 재정 지원을 담당  
하였는데, 지원 내용은 공업 교과서 편찬 발행(특히 실험·실습  
교과서의 편찬, 공급), 공업계 고등 학교 전문 교과 교사 양  
성, 공업계 고등 학교의 시설 확충, 공업계 고등 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필자가 1966년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처음 근무할 때 실험·실  
습 교과서는 없었다. 이 때, 지도 교사는 실습 일감을 유인물로  
만들어 실습을 지도하였고, 실습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미국,  
일본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번역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자동차과의 경우 미 8 군에서 용도 폐기한 자동차와  
공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실습을 할 수 있었다.

## II. 실업 교과 편수관 10명 중 5명이 공업 교과 편수관

필자는 1983년 문교부 교육시설국에서 공업계 고등 학교 시  
설 지원(주로 실험·실습 시설) 업무를 담당하였고, 1985년 보  
통 교육국 과학기술과에서 공업계 고등 학교 행정·재정 지원 업  
무를 담당하였으며, 1987년부터 1994년까지 7년 동안 장학 편  
수실에서 공업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를 담당하였  
다. 이 때, 실업 교과 편수관은 모두 10명이었는데 농업, 상  
업, 수산·해운업, 전산 담당 편수관이 1~2명인데 비하여 공업  
교과 편수관은 5명으로 산업체 기술 인력 양성 정책에 부응하  
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장학관(전 장학기획과장)** (직장)



공업계 교과 편수 업무는 공업계 고등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 교육 관련 이론 및 실습 교과로서 그 영역은 기계, 금속, 자원, 전기, 전자, 통신, 전자 계산기, 토목, 건축, 디자인, 화학 공업, 요업(세라믹), 식품, 섬유, 인쇄, 자동차, 조선, 항공 등 18개 영역이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19개 영역이었는데 이는 국립철도고등학교가 전문 대학으로 승격되면서 고등 학교 수준에서 철도와 관련 인력 양성 기관이 없었으므로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철도 운전과를 폐지하였다. 1958년부터 1988년까지 공업 고등 학교 학과와 교과목 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1〕 공업 고등학교 학과와 교과목 수의 변천

구 분	교육과정 제정 공포 (1958)	제 1 차 교육과정 개정 (1963)	제 2 차 교육과정 개정 (1971)	제 3 차 교육과정 개정 (1976)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 (1981)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 (1988)
공업계 고등 학교 설치 학과 수	23	19	18	18	19	18
공업계 고등 학교 전문 교과목 수	127	141	183	191	151	130

※ 자료 : 제 6차 공업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 각론 개발 연구, P.114, 1992.

필자의 편수 업무 담당 영역은 위의 18개 공업계 영역 중 화학 공업, 요업, 식품, 섬유 등 4개 영역의 공업 교과 편찬 업무를 담당하였다. 1960~1980년대 공업 고등 학교의 설치 학과와 학생 수는 대부분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건축과, 토목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요업과, 식품과, 섬유과는 전국에서 2~3개 공업계 고등 학교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어 학생 수, 학급 수, 전문 교과 교원 수가 기계, 전기 분야에 비교하면 그 규모가 매우 작아 교과서 편수에 필요한 집필진, 심의진, 현장 검토진의 인력 확보에 애로가 많았다.

“

실업 교과 편수관은 모두 10명이었는데 농업, 상업, 수산·해운업, 전산 담당 편수관이 1~2명인데 비하여 공업 교과 편수관은 5명으로 산업체 기술 인력 양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Ⅲ. 법규와 공업 교과 편수관의 직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언제나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필자가 문교부 교육시설국, 보통교육국에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는 공업 고등 학교 지원 업무였다. 공업 고등 학교 지원은 대부분 산업교육진흥법과 과학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교과서 편수를 담당하는 동안 전문 교과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였다. 일반 교과를 담당하는 편수관과는 달리 공업 교과를 다루는 편수관은 교과서 내용이 관련 법규에 적절하게 서술되고 있는지 여부와 또는 법규와 정반대 되는 서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규는 그때 그때 사회 환경의 변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법규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비교하여 교과서의 수정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공업 교과 편수와 관련 필자가 재직하는 동안 관심 깊게 살펴본 법규는, 환경 보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산업 안전, 공업 표준, 실업계 고등 학교 실험·실습 설비 기준, 과학 기술 진흥, 산업 교육 진흥 등이다.

일반 교육 행정직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법규만 숙지하고 있으면 되었지만 공업 편수관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업 교과서가 공업계 고등 학교 학생, 공업 고등 학교 졸업생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체, 새로 개발되는 산업체의 기술, 향후 기술 인력 양성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 Ⅳ. 실습 교과서 편찬 과정의 애로

실습 교과서 편찬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학교 지도 교사의 입장, 실습 시설을 확충하고 실습실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지원 예산 규모, 산업체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습 일감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실습 교과서 편찬에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

산업체의 생산 시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집약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생산 공정의 자동화, 전산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 문교부는 초·중·고등 학교에 전산 교육(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습 교과서 편찬에서 산업체의 선진 기술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편찬할 경우에 공업계 고등 학교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기준을 개정하여야 하고, 문교부와 시도 교육청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설비와 장비를 확충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업계 교사들은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산업체 연수나 국내·국외 연수를 하여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대로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실습 기구에 맞추고, 학교 실정에 맞게 실습 교과서를 편찬할 경우, 실습 교과서가 산업체 기술 수준을 따르지 못하는 불평을 듣게 되는 수가 있었다.

공업 편수관은 이러한 고민을 안고 편수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 V. 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서 편찬과 외래어 표기

공업 교과서 내용을 고등 학교 학생 수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당시 교과서 편찬 연구 기관이 공과 대학 부설 연구 기관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집필 내용이 전문 대학, 대학 수준으로 편찬되는 사례가 있었다. 중학교의 과학 및 기술 교과를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교과서 내용의 일부분 중에는 어려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제조 화학 공업 교과서에서 고분자, 유기 합성을 다루게 되는데, 화학의 기초 이론을 먼저 학습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다.

섬유과에서 다루는 합성 섬유의 구조와 제조 공정, 요업과에서 다루는 결정 구조, 식품과에서 다루는 영양 대사 부분도 학생 수준에는 어려운 내용으로 생각되었다.

공업 교과서에서 기계 기구 이름, 사용 재료, 제조 공정, 공구, 외국의 지명, 인명 등 표기의 대부분이 외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 88-1 호),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 88-2 호)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했다. 다행히 1 종 도서를 인쇄·공급을 담당하는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 VI. 공업 교과서 편찬과 외부 기관과의 협력

자연 과학 편수관실에 근무하는 동안 공업 교과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 현안들을 열거하면, 안전 교육, 환경 교육, 계량 및 측정 단위, 원자력 발전 안전 등 4 개 분야일 것이다. 이 중에서 환경 교육과 계량 및 측정 단위 등 2 개 부분에서 초·중·고등 학교 교과서에서 타당성과 중요성이 반영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안전 교육과

“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실습 기구에 맞추고, 학교 실정에 맞게 실습 교과서를 편찬할 경우, 실습 교과서가 산업체 기술 수준을 따르지 못하는 불평을 듣게 되는 수가 있었다. 공업 편수관은 이러한 고민을 안고 편수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

원자력 발전에서 핵폐기물 저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20년이 다가오는 지금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업 교과 편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외부 기관의 요청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공업 교과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현안 내용

요청 기관명	교과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력자원부 전력정책국</li> <li>-한국전력(주) 원자력 발전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나라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이 점점 높아지므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부 산업안전국</li> <li>-한국산업안전공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초·중·고등 학교 모든 교과서에서 안전 교육 강조 요청</li> <li>-안전 교육의 조기 교육의 필요성 강조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보전 강조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교과서에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진흥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 기술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모든 과학, 산업 기술의 교과서에 법정 단위 사용과 정착을 요청</li> </ul>

전력은 국민 생활, 산업체 등 우리 인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나라 전력 공급 비율이 점점 원자력 발전 쪽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발전 후의 핵폐기물의 안전 때문에 폐기물 저장 부지를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며, 검증이 되지 않은 핵폐기물 저장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서술한다고 보면 보다 큰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다.

산업 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 속에서, 고속 도로에서 발

“

공업 교과서 내용을 고등 학교 학생 수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당시 교과서 편찬 연구 기관이 공과 대학 부설 연구 기관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집필 내용이 전문 대학, 대학 수준으로 편찬되는 사례가 있었다. 중학교의 과학 및 기술 교과를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교과서 내용의 일부분 중에는 어려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생하는 사고는 대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각종 사고 예방과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산업 안전 교육이 필요한 공업 교과 내용에만 다루도록 하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옛말을 상기시키면서 안전 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실시하여야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가능한 모든 교과서에서 안전을 다루어야 산업 재해에서 발생하는 물적, 인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Ⅶ. 맺는 말

우리 나라 공산품의 해외 수출 실적이 1967년에 1억 불이, 1977년 100억 불, 1995년에 1000억 불을 달성하여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 중 기술 인력 양성 부분을 문교부와 노동부가 담당하였으며, 공업 편수관은 공업 교과서 편찬 노력으로 기술 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성과를 계량적으로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제조업의 경우에 노사 분규, 노임 상승 등으로 외국으로 이전되어 국내에서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젊은이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며, 또한 3D 업종에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영상 매체의 공급 등 교단의 선진화로 교수·학습 방법이 과거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도 과거 60명에서 지금은 30명 정도이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실정,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공업 교과서 편찬도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일을 하는 가운데 성취감과 자기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다. 이것이 공업 교육의 기본이다. 21

〈1987~1994년 공업과 편수관〉

# 제7차 교육과정과 21 세기가 추구하는 인간형

■ 글 / 권영출 (강현중학교 교사)



## 1. 미래 사회와 교육과정의 방향

새로운 문명은 혁명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모든 가설에 도전하며, 낡은 공식이나 도그마, 낡은 이데올로기는 과거에 아무리 유효하고 존경받던 것이라 해도 이미 현실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언급했던 이런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미래 사회가 과거 어느 시대보다 급격하고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의가 없을 것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농경 사회를 끝내고 공업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1946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발명된 전자 계산기 예니악 역시 50년이 못 되어 과거 우리를 지배하던 익숙한 많은 것들을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사무실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던 타자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많은 직종의 직업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 대신 이름도 들어 본 적이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놓았다. 이 흐름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이 도도한 흐름은 홍수와 같이 낡은 공식, 낡은 이데올로기, 낡은 관념들을 휩쓸어 버린다. 문제는 이 미래 사회의 도래를 예고하는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가 교육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17세기 베이컨의 말이 그 동안 우리 사고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도그마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은 몇 세기를 넘어서 현재까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 왔던 관념이다. 누가 얼마나 많은 양의 지식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식의 척도’와 가치 기준의 준거로 적용되면서 고통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분기별로 치르는 모든 시험의 70~80%의 문제가 기억을 테스트 하는 문제이다 보니 다른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해도 ‘기억력’이 부족하면 스스로를 열등생 취급을 할 수 밖에 없다. 자신감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추리력, 상상력, 창의력 등의 능력이 썩트고 자라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새로운 정보와 급속하게 변하는 정보의 내용들이 넘쳐나면서 지식의 양이 엄청

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은 이렇게 생겨난 지식을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유통·확산될 뿐만 아니라, 확산된 지식이 바로 다른 지식과 접촉되어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창출된다. 이러한 과정이 아주 짧은 시간에 생겨나고 소멸하기 때문에 지식의 생명력은 짧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개방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인간,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인간, 전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민주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인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은 이제까지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념을 탈피하여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 학교 2·3학년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10 가지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성 있는 국민 교육’, ‘교과 통합 및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축소’, ‘고등 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 과목 대폭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진로 지도’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과와 특별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에 재량 활동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 교사들에게도 수동적 교육과정의 틀을 탈피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리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제도이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이는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 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70년대 초반 평준화 제도의 도입 이후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온 이질 집단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중학교 과정에서의 기술·가정 과목의 통합과 재량 시간에서의 생활 외국어 도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교과별, 수준별 성취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학력 평가,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2.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제7차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개방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간형과 ‘자율과 경쟁’ 그리고 ‘창의력’ 등의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학부모와 일부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야 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우열반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집단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실시한다고 해도 2단계 정도로 그치고 있다. 특히, 하위 집단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경우, 정서적 열등감과 의욕 감퇴를 보이는 수업 분위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 사회나 학교의 문화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아니다 보니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

**제7차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개방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간형과  
‘자율과 경쟁’ 그리고 ‘창의력’ 등의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에서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쪽으로의 영향력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일부 극성적인 학부모는 우수반에 편입시키기 위해 과외를 시작하는 등 사교육비 증대의 원인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역시 35~6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급 안에서 분단으로 나누어 실시한다는 것도 탁상공론에 불과한 발상이었다고 본다.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비해 내용의 양을 30% 정도 줄였다고 하지만, 한 시간에 가르쳐야 할 분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심화·보충의 수준별 학습을 충실히 하기 어렵고, 도리어 심화형에 소홀할 수 있어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평가시에도 난이도 조정을 한다고 심화형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문제로 낸다면 또 문제의 소지가 생기게 된다. 문제는 이런 기조와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일선 교사를 설득하여 자신들의 수업 노하우 속에 녹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융통성과 자율성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양한 현장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틀을 주어서 일사불란하게 성과를 계량화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이야 말로, 자율과 경쟁을 통한 자기 주도적 인간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정신과 잘 부합된다. 교사들 역시 과거 자신들이 익숙해 있던 방식

이나 관념을 떨쳐 버리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정책을 세운 학자나 관료가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교사들의 마인드를 바꾸어 놓기 위한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넣으면, 새 술이 발효하면서 팽창하는 변화를 낡은 가죽 부대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터지고 만다. 낡은 가죽 부대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과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10 과목 역시 어떤 기준에서 선정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지양하는 목표는 21세기이면서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나 적합한 주지교육(主知敎育) 중심의 지식 위주 교과 수업이 지나치게 많다. 이른바 영향력 있는 사범 대학 교수들의 입김에 의해서 나눠먹기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현장 교사들은 가지고 있다. 선진 국가들은 ‘학력과 경쟁, 자율’이라는 원칙하에 폭넓은 자율권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이양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10년 동안 배워야 할 교과, 학년별, 학기별 이수 단위까지 세세하게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 권한이 없으면 책임 의식도 줄어드는 법이고, 교사가 자율적이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율의 율(律)이 전수될 수 없는 법이다. 결국,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짜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 일선에서는 상치 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특히, 기술과 가정 교과와 경우, 두 교과와 성격과 목표가 확연히 다른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10개 교과를 10년 동안 필수로 배운다는 기조를 만족시키기 위해 병합이라는 편법을 썼다. 따라서, 기술·가정이라는 교과서 신설되면서 교사 임용과 교사 연수에 이르기까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채 시간이 지나가면 균형은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다. 4년 동안 공부해도 쉽지 않은 교과 내용을 10주 정도의 연수로 자격을 주는 것은 ‘수업의 부실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험 실습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려면, 단순 지식을 가진 정도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앙드레 김이 만든 최고 디자인의 옷이라고 해도 입을 사람의 몸에 맞아야 의미가 있지 않은가?


창의적 재량 활동이란,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학교의 재량에 맞도록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나 교과와 상관 없는 범 교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성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등 교과 학습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이 부분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수업 시간이 적은 교사에게 안배하는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다. 처음부터 자발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지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 3. 결 론

세계화와 지식 기반 사회를 바라보는 시대상을 반영한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사용도

해 보지 못한 채 차기 교육과정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오는 것을 본다. 문제는 이런 철학과 비전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료들이 ‘그런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철학과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여전히 상의하달식이며 구태의연한 명령 중심, 밀어붙이기 중심의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 채 학자들의 주도로 작성한 교육과정은 바다 위에 섬처럼 혼자 떠 있는 모습이다.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장구를 쳐도 춤을 추지 않는다면 피리와 장구 소리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 국민을 원한다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내려는 교육 관료들의 진지하고도 진실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교육 관료들의 위압적이고 우월적 권위 의식을 버리려는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 교사들의 신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너지 효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생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교과서 검정 때 느낀 일이지만,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 봉사과 신뢰를 주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 관리들이 어찌나 까다롭게 대했던지……. 앞뒤가 바뀐 실상에 대해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목표와 방향이 미래 지향적이며 개혁적임에도 불구하고, 치수를 재지 않고 맞춘 양복처럼 막상 입어야 할 사람이 피하고 있는 격이다.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이라는 기본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여건 마련에 좀더 세심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요망되며, 학부모, 교사,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추인해 낼 수 있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 교과서 편집자로 살아간다는 것

■ 글 / 김덕유 (천재교육 국어과 대리)



## 1. 교과서는 재미 없다?

**교**과서는 재미 없다. 이것이 내가 교과서 편집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다. 교과서는 여러 가지 고민으로 방황하기 일쑤였던 학창 시절의 우리들에게 대체적으로 일방 통행의 지식만을 강요했으며, 그맘 때의 예민한 감수성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발전시켜 주기엔 무척이나 딱딱하고 건조한 활자와 면의 장식에 불과했다. 아니 사실 그런 생각조차도 학창 시절에나 했을 뿐, 그 이후에는 교과서는 재미 없다는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야 옳다. 교과서는 관심 밖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물론, 때때로 일상의 대화에서 교과서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교과서는 예의 그 무뚝뚝한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다. 틀에 박힌 사고에 사로잡힌 친구에게 내가 했음직한 “그건 교과서에서나 통하는 거 아냐?”라는 빈정거림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누군가를 두고 우리들이 했음직한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라는 힐난을 떠올려 보아도, 교과서는 여전히 크게 보아 ‘재·미·없·다’는 등식과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등 학교를 마칠 때까지 내가 쌓은 지식의 8할 정도는 교과서에서 얻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나는 그것의 은혜를 모른척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자신의 본래 소임을 다하고서도 그것은 라면을 끓인 뜨거운 냄비의 받침이 되어 주었고 옛장수의 가래엿과도 바꿀 수 있는 현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또 딱지가 되어 땅바닥을 뒹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구겨져 밀싯개로 쓰여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은 교과서의 순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두고 재미 없다고 일갈하는 나의 처신은 분명 배은망덕의 전형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 2. 고민은 끝없이 계속된다

그 배은망덕의 권선징악적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느 순간 교과서 편집자가 되어 있었다. 물론 입사 지원서에는 교육과 출판의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에서 일하고 싶다는, 제법 그럴싸한 입사 동기를 밝히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당시의 솔직한 심정이



**교과서 편집자는 끊임없는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  
하는 원론적인 고민에서부터 실무에 들어가면서 쏟아지는 무수한 의문들,  
이들테면 원고의 내용과 체계가 교육과정 정신에 맞고 교과 학습 목표에  
부합하며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것인지…….**

기도 했지만, 두 권의 교과서와 그에 따른 두 권의 지도서를 만들면서 나는 곧잘 ‘지금 나는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아름답지 못한 고민에 빠지기가 일쑤였고, 그 고민을 제대로 풀 겨를도 없이 3년이란 기간 동안 교과서 편집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정말이지 교과서 편집자는 끊임없는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 하는 원론적인 고민에서부터 실무에 들어가면서 쏟아지는 무수한 의문들, 이들테면 원고의 내용과 체계가 교육과정 정신에 맞고 교과 학습 목표에 부합하며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것인지, 또는 교과서 편집자의 역할은 어디까지이며 개개의 사안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등의 정체성에 관한 것까지, 고민의 폭은 넓고도 깊다.

그러한 의문에 빠졌을 때 더없이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원고의 질에 대한 냉철한 비판, 그리고 집필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의 능력과 집필자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집필 능력 등이다. 이 또한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말은 쉬운 것이고, 인생이 교과서에서 가리키는 대로 술술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실무에서는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 때때로

능력과 체력의 한계를 타하며, 과연 교과서 편집자의 길을 선택한 나의 판단이 옳았는가 하는 혼란스러운 고민으로 괴로울 때도 많다. 그래서 교과서 편집자는 그런 저런 고민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다.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그랬다.

그 고민을 풀기 위한 노력과 성찰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하면 좀 우습지만, 그렇게 밖에는 지금의 나에 대해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교과서 편집자 또는 교재 편집자라는 현재의 내 직업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많은 새로운 고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 **3. 교과서는 재미있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도 나를 비롯한 선후배, 동료 사원들은 모두들 맡은 바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 냈다고 자부한다.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뿌듯해진다. 김정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보여 준 우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서로에게 베푼 아낌없는 격려가 더욱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자기 체면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숭고함과 순정함을 이야기했으며, 할 수 있다는, 어쩌면 오기에



가까운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우선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교과서에 어떤 정신을 담을 것인지를 고민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세워 나갔다. 그런 한편으로 해당 교과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 기준, 집필상의 유의점 등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세부적인 편집 틀을 마련해 나갔다.

분명히 그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 교과서와는 사뭇 다른 면모를 기대했다. 당연히 그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것이 마냥 부담스럽지만은 않았던 것은 그러한 교과서 개발이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미래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샘솟았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무엇보다도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모두들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쉽고 재미있고 친절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어려웠고, 재미가 있는 만큼 고통이 뒤따를 때가 많았으며, 친절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독서는 사회적인 의사 소통의 과정’이라는 정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독서를 통해 사회적인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그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 활동을 통해 탐구해 낼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만화나 삽화,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구성해야 했고,

또 때로는 텍스트 자료도 적절하게 활용해야만 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는 그렇게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섬세한 배려가 없이는 탄생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집필자나 편집자 모두에게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요구했다.

나 또한 그랬다. 내 기억 속에 ‘재미 없는’ 책으로 낙인 찍혀 있던 교과서를 내 손으로 ‘재미있는’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혁명과도 같은 일 이었고, 좀더 과장한다면 나는 그 혁명의 최전선에 나선 전사라고 보아도 무방한 일이었다. 내가 그 혁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했던 부분은 내 안의 고정 관념을 깨고 생동하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 이었고, 더불어 집필자에게 혁명의 뜻을 올곧게 전달하여 그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원고를 받는 일이었다.

#### 4. 전쟁 같은 날들의 추억

쉽지 않았다. 아니 첫 원고를 받았을 때의 느낌대로라면 그것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컸다고 말해야 옳다. 모든 원고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원고의 구성이 체제에 맞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 차례의 편집 회의에서 논의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탓이었다. 그 원고대로 책을 편집한다면 쉽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으며 재미 없는 교과서라는 평가가 ‘부적격’이라는 심사 딱지로 나타날 것이 뻔했다. 한 마디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교과서 편집 경험이 많지 않았던 나는 허둥지둥하면서 갈피를 못

내 기억 속에 ‘재미 없는’ 책으로 낙인 찍혀 있던  
교과서를 내 손으로 ‘재미있는’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고…….

잡고는 결국 사직서를 쓰고 말았다. 교과서 심사본 제출을 서너 달 앞둔 시점이었다.

당연히 팀장님은 아연실색했고, 나는 나대로 사직서가 수리되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힘들다는 데까지만 노력해 보자는, 어려운 점은 조금씩 풀어가 보자는 팀장님의 설득과 교과서 진행 편집자가 중도에 그만두는 일의 무책임함에 대한 자책감에 나는 사직서를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원고와 씨름을 했다. 선배들과 팀장님의 조언을 토대로 현장 교사 몇 분을 섭외하여 검토와 수정을 의뢰했으며, 집필자들과 원고 집필 방향을 다시 논의했다. 그러면서 집필자들도 성의껏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 나는 나대로 디자인을 수정했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원고를 집필해야 했다. 그렇게 엉킨 실타래를 풀 듯 차츰 일의 가닥을 잡아 나가면서 조금씩 교과서의 틀이 짜여지고 내용이 채워졌다. 그러나 진행은 여전히 더뎠다. 멀게만 느껴지던 교과서 심사본 제출일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러다가 심사본을 제출하지도 못하면 어쩌나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때도 적지 않았다. 나뿐이 아니었다. 교과서 제출일이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부터는 모

두가 긴장 상태에서 일을 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갈수록 야근 시간은 늘어만 갔고, 심지어는 집에 다녀올 시간조차 아까워 회사 근처의 여관에서 잠을 잔 적도 많았다. 집이 멀어 출퇴근 시간이 길었던 어떤 후배는 아예 회사 근처의 고시원에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기까지 했으니, 말 그대로 전쟁 같은 나날이었다. 쟁길 것은 또 어찌나 많았던지…….

그러나 어느 한 사람 포기하지 않았다. 내심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책임감 이랄까, 야릇한 승부욕이랄까, 아니면 시나브로 쌓인 남다른 직업 정신인지도 모를 그런 의욕과 패기가 심사본을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료 간의 연대 의식 또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긴장의 날들을 버티며 무사히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한 버팀목이었다.

과정이 결과를 말해 준다고 한다. 그 점에서 교과서 편집 또한 비교적 과정과 결과가 정직한 일이다. 분투한 만큼 대부분 ‘최종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느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다. 적어도 내가 지켜본 편집자 중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


다면, 아마도 다들 기꺼이 축하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교과서에 사랑과 정열을 바친 순정의 편집자였다.

## 5. 교과서 편집자로 살아간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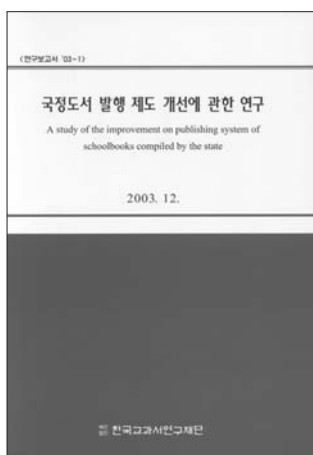
돌이켜보니 교과서를 개발하는 동안, 나는 참 바빴다. 바·빳·다. 그저 이 한 마디의 말에 교과서 편집자의 일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생각하니 처연한 생각도 들지만, 사실이 그랬다. 그리고 힘들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마는, 힘든 게 사실이었다. 물론 바쁘고 힘들었다는 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렇다고만 말하기에는 따뜻하게 섬세한 그 무엇도 있었다. 이를테면 기쁨과 보람 같은 것들도 맛보았고 진한 동료애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야 조금은 덜 서운할 것이다.

교과서 편집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남다른 열정이 없다면 포기하기가 쉬운 일이다. 그리고 그 열정은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

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노력이 동반될 때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그 어려운 과제들과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자만이 훌륭한 교과서 편집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아득한 일이나,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용기를 내어 볼 만도 한 일이라고, 겁없이 생각해 본다.

다른 한편으로 교과서 편집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숨가쁘게 분주한 날들 속에서도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눈 맑은 정신과 너그러운 마음가짐 또한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교과서 편집자의 삶은 교과서 개발 업무의 특성상 인내와 헌신의 암묵적 강요 속에서 팍팍하게 메마르기가 쉽기 때문이다. 땀 흘려야 하는 지상의 모든 일들도 그러하겠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되 유연하게 사고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자칫 일과 사람에게서 상처받기 쉬운 교과서 편집자에게 일보다는 삶 자체의 의미를 잃지 않게 하는 지혜를 제공하지 않을까 한다. 어찌 보면, 교과서 편집자로 일한다는 것은 교과서만큼이나 정직하면서도 지혜로운 삶의 토양을 가꾸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 국정 도서 발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 보고서 2003-1〉

이 연구는 국정 도서 발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교과용 도서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로서 국정 도서의 범위와 정책 개선 방안, 발행사의 전문화 방안 및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국정 도서의 개발을 초등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하되, 개발 업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문 사회 성격의 도서와 자연 과학 성격의 도서, 그리고 예·체능 성격의 도서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등 도서의 개발은 공모제의 도입을 추진하여 2~3개로 하여 단일 교과서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정 도서 편찬 체제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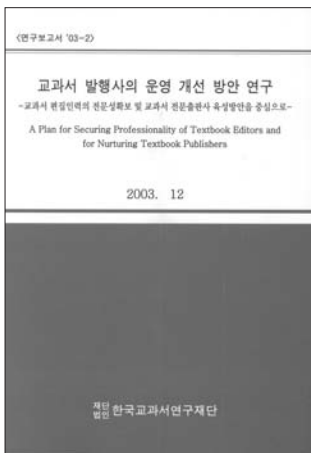
해서는 광범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편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국정 도서의 발행은 초등의 경우, 교과와 종적·횡적 연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등 교과용 도서 통합 발행사로 전문화하고, 중등은 교과별로 계열성과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발행사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 도서의 공급에 관해서는 국정과 검정의 공급 체계를 이원화하여 검정의 경우처럼 ‘국정도서협회’ 산하 공급 조직을 구축하여 공급하거나 중심 발행사에 위탁, 공급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국정 도서의 개발·발행·공급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성, 경제성, 편의성, 공익성을 고려한 교과용 도서 제도 수립에 기여하고 개발 기관, 개발비의 현실화와 발행사의 전문화를 통해 집필진과 편집진의 의욕을 고취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발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분당고등학교 유학영 님(연구 책임자), 서울대학교 김대행 님, 광운대학교 한상진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서 발행사의 운영 개선 방안 연구

부제 :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 보고서 2003-2〉

이 연구는 교과서 발행사의 ‘운영과 편집 인력의 전문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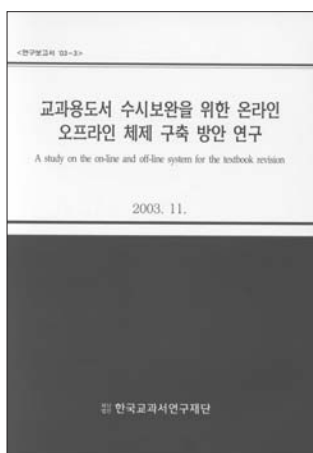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국내 및 주요 외국의 교과서 출판사의 사례 연구와 제 상황을 조사하여 교과서 편집 인력의 자질 향상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 과제를 조사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사례 연구를 통해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 출판사의 육성을 위해서는 편집인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편집자의 직무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 교과서 관련 기관에서 편집자의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이 연수는 ‘교과

서 출판 기획’, ‘각 교과별 교과서 개발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정론’, ‘교과서 문장 교정 기법’, ‘교과서 편집 디자인’을 주요 교과목으로 설정하였다.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편수 조직의 기능 강화, 적정한 지원비의 확보, 전문 출판사·편집자 등급제(또는 자격제) 도입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교과서 연구부의 상설 운영, 전문적인 개발 교과목의 선정, 집중 육성할 과목별로 전공 편집자를 확보하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선진 외국의 우수 교과용 도서 전문 출판사와의 교류, 교과용 도서 개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관련 기관의 역할로서 외국의 편집 기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관련 부서를 설치하거나 또는 독립된 기관의 설립과 ‘학습자료협회’의 연구 기능 사업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출판사의 교과서 전문 편집인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 출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전문 편집인의 육성을 통하여 전문 출판사로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울러 각 교과별 전문 출판사에 관한 후속 연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허 강 님(연구 책임자), 박상만 님,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 님, 대전혜천대학교 이종국 님, 아트 미디어 조성준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용 도서 수시 보완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체제 구축 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2003-3〉

연구는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개편과 수정 제도가 교육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교사는 물론 학부모, 학생 등 이해 관계자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과서 수정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체제상 문제점으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도 새로워져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현행 체제로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현행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의견의 수렴이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과서를 수시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체제 구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의 수시 보완을 위한 전체 과정은 (1) 온라인 체제를 활용한 교과서 수렴에 대한 의견 수렴,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체제에서의 수정 요구에 대한 수합 및 심사, (3) 온라인 체제를 통한 수정 사항의 즉시 전달, (4) 최종적인 수정 사항을 반영한 교과서 인쇄까지의 절차로 구성할 수 있다. 온라인 체제에서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교과서의 향상적 질 개선을 위해 교과별, 출판사별 교과서 개선 모니터링 제도 구축 둘째, 온라인 체제를 운영할 만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한 통합적 운영, 셋째, 모니터링 요원의 운영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재정 자원의 출판사의 투자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조금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체제에서 수정 요구의 수합 및 심사의 실시를 위해서는 수정 요구에 대한 심사의 온라인 체제는 상시 가동하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오프라인 체제에서 심사하게 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체제를 통합적으로 활용한 교과서 수시 보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내용적 측면에서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고, 교과서의 현장 적용에 있어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으며 교과서 보완 요구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 체제에 부분적 또는 지역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과서 내용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손병길 님(연구 책임자), 이 준 님, 이경순 님, 고려대학교 홍후조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 ■ 교육인적자원부

### □ 근 거

대통령령 제 18328 호 (2004년 3월 22일)

### □ 조직 개편 주요 내용(학교정책실)

개편 후	개편 전	비 고
<b>학교정책실</b> <u>학교정책심의관</u>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폐지) (폐지)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직단체지원과	<b>학교정책실</b> (신설)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과학교육정책과 평가관리과 <u>교원정책심의관</u>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원복지담당관	• 교원정책심의관 명칭 변경  • 고교 단계 직업 교육 추가 • 학교정책과 등으로 이관

※ 학교정책실에 실장을 두고, 실장 밑에 학교정책심의관을 두며, 실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정책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교육과정정책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함.

### □ 교육과정정책과 업무 분장

- 유치원 교육과정, 특수 학교 교육과정 및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 교과용 도서 심의회 및 교과용 도서 발행 심의회 구성·운영
- 교육과정 심의회 및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 구성·운영
- 교과용 도서의 편수·수정·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 
- 교과용 도서의 집필 지침 및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외국 교과서 왜곡 대책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용 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 검토
  - 교육과정 평가 기본 계획의 수립
  -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 국정 도서의 편찬 계획 수립
  - 검정 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의 가격 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 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 관련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발행·공급 및 학습 참고 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지도

# 교과서 연구 단체 : IARTEM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조사연구부)

IARTEM에 대해서는 교과서 학계나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 일반 독자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다. 그러나 이 학회명은 교과서와 관련된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체이므로, 이 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 단체에서 발표되는 보고서나 교과서 및 교육 미디어에 관한 전문 도서는 이 분야의 전통성에서뿐만 아니라, 이론 및 실무면에서 그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IARTEM이 하는 일과 최근에 개최한 제7차 국제 회의에 대해 그 개황을 알아보기로 한다(번역자: 허 강).

## 1. IARTEM이 하는 일

IARTEM은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on textbooks and educational media’의 약자이다. IARTEM은 ‘교과서와 교육 미디어에 관한 국제 학회’라 부를 수 있다. IARTEM은 연구자 등을 위한 단체로서 여기서 하는 일은 ① 교과서와 교육 미디어에 관한 이해와 연구를 촉진시키고, ② 교육 미디어와 교과서 발행에 관심 있는 모든 단체와의 연결을 도모하며, ③ 교사 교육·훈련에서 교육 미디어와 교과서를 발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IARTEM은 제도상으로는 상업적으로 이해가 없는 비영리 기관이며, 회원은 개인적인 활동이나 또는 교과서 발행과 교육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참고로 웹 사이트와 회원 가입에 관한 안내를 하면 다음과 같다.

○ IARTEM 웹 사이트 : <http://www.iartem.no>

○ 회원 가입 신청 : 1638. 01. 17294

Union Bank of Norway

Swift Code : UBNONOKKTNS

P. O. BOX 2008, 3101 Tonsberg, Norway

○ A 회원을 희망하는 경우는 2년간 회비 유로화 50을 위 구좌에 납입하면 된다(성명, E-mail 주소, 신청 회원 주소 등을 기입).

IARTEM은 2년마다 국제 학술 회의를 가지며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다. 제 1차 회의는 1991년 스웨덴에서 개최하였으며, 제 2차는 1993년 핀란드에서, 제 3차는 1995년 덴마크에서, 제 4차는 1997년 노르웨이에서, 제 5차는 1999년 네덜란드에서, 제 6차는 2001년 에스토니아에서, 최근에 열린 제 7차는 2003년 9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렸으며, 여기에서 임원(IARTEM's board members) 9명을 선출하였다.

IARTEM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최신 가입자, 도서 목록집, 교과목, 기본 도서, 이데올로기, 일러스트레이션, 교과서사(史), 교과서 개발, 방법론, 조사, 교과서 품질, 정기 간행물, 기타 목록 등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다.

IARTEM 주요 관련 기관인 호주의 'TREAT'와 독일의 'Georg-Eckert 교과서 연구소' 및 IARTEM 관련 교과서 출판사를 소개한다.

#### \*기 관

- teaching resources and textbook research unit(TREAT)  
at the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http://alex.edfac.usyd.edu.au/TREAT>
- The Centre for Pedagogical Texts and Learning Processes  
at Vestfold College, Norway : [www-lu.hive.no/tekstar/engversion](http://www-lu.hive.no/tekstar/engversion)
- Senter for Pedagogiske Tekster og Læreprosesser ved  
Hogskolen i Vestfold (Norwegian version) : <http://www-lu.hive.no/tekstar/>
- Georg-Eckert-Institut  
Celler Straße 3 38114 Braunschweig, Germany  
<http://www.iartem.no/http> | <http://www.gei.de>  
E-Mail : [info@gei.de](mailto:info@gei.de)

#### \*출판사

- Egil Børre Johnsen(1993)  
Textbooks in the Kaleidoscope  
<http://www-bib.hive.no/tekster/pedtekst/kaleidoscope/forside.html>  
(A full text survey in English of literature and research on educational texts)
- Full text publications from Vestfold College (see above) :  
<http://www-bib.hive.no/tekster/pedtekst/index.html>

## 2. IARTEM 제7차 회의 개황

IARTEM 제 7차 회의는 2003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 독립된 슬로바키아(Slovakia) 수도인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과거와 같이 교과서 연구자와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가 많이 참가하였으며, 교과서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학술 회의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다. IARTEM 회장인 Staffan

Selander 교수(스톡홀름 교육대학, SIE)는 교과서를 포함한 학습 미디어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의 개념과 교육과정의 뜻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교육부 장관 대리는 슬로바키아는 국정 교과서의 편찬·발행을 민영화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교과서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아국에 도입하여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기조 연설을 한 서 시드니 대학교의 Mike Horsley 교수, Richard Walker 교수는 「교과서의 교육학(Textbook Pedagogy)」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은 몇 가지의 구체적인 교과서 사용에 대한 조사 모델을 제시하면서, 교과서 사용 실태가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의 교육학’ 용어는 2002년 D. Lambert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사용한 바 있다.

이번 제 7차 회의는 그 주제가 “21 세기의 교과서와 교육 미디어”, ‘Has Past Passed? Textbooks and Educational Media for the 21st Century’였으며, 참가자 정회원 60여 명은 이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과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Selection, Evaluation and Quality Development of Textbooks and Other Educational Media’

이 연구 주제는 2000~2003년에 추진해 온 것으로서 20여 명이 참여해서 19개 주제를 가지고 17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주제에 참여한 인원은 150명이었다.

○ ‘The Multicultural Perspective in Textbooks and Educational Media’

이 연구 과제는 2002~2003년에 추진되었으며, 수학과 교과서와 사회과 웹 자료 등 두 개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위의 두 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http://www-lu.hive.no/tekstar/>으로 연락해서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IARTEM 사무국은 노르웨이 Vestfold University College에 있으며, IARTEM의 website는 <http://www.iartem.no>이고, 데이터 베이스의 사이트는 <http://www-lu.hive.no/pedtxt>이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 연구 단체는 IARTEM과의 업무 유대를 도모하고, 교과서에 관한 국제적 학술 교류를 동반하기 위해 IARTEM에 가입함은 물론, 제 8차 학술 대회(2005년 개최)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관계자는 물론 교과서 민간 단체에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교과서 연구 국제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http://www.iartem.no/>
- 교과서 연구 센터 센터 통신 NO. 82, ‘제 7회 IARTEM 보고’, 일본: 교과서 연구 센터, 2004. 3.

##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저작권법 제 23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규정에 의거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 기간은 1 년(2004. 1. 1.~2004. 12. 31.)으로 함.
2. 보상 대상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7634 호) 제 2 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 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 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 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 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 기준	보상 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 자 원고지 1 매	660 원	수필, 논문,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 편 이상 1 편 이하	6,680 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 편 이상 1/2 편 미만	3,330 원	
		1/4 편 미만	2,000 원	
음악 저작물		1/2 편 이상 1 편 이하	4,300 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 편 이상 1/2 편 미만	2,150 원	
		1/4 편 미만	1,280 원	
미술·사진 저작물		1/2 쪽 이상 1 쪽 이하 크기	6,570 원	
		1/4 쪽 이상 1/2 쪽 미만 크기	3,280 원	
		1/4 쪽 미만 크기	1,970 원	

※ 최저 1만 부 이하는 1만 부로 하고 1만 부 초과부터 발행 부수에 비례함.

# NEWS

## 연구재단 소식

### ✳ 임원 동정

○...김만곤 감사 취임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 개편과 관련, 우리 연구재단 당연직 감사인 평가관리과 김찬기 감사 후임으로 교육과정정책과 김만곤 과장께서 2004년 3월 5일 감사에 취임하였다.

### ✳ 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재단은 2003년 12월 4일 오전 11시 코리어나호텔에서 2003년도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2003년도 출연금 기본 재산 편입
- 기금 운용 및 청사 확보 계획
- 청사 확보 자금 차입
- 임대 사업 추진 계획
- 2003년도 추가 경정 예산
- 200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 (주)한진의 용역 대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보고 등

○...우리 연구재단은 2004년 2월 25일 오전 11시 이사장실에서 2004년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2003 회계 연도 결산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정관 개정
- 2004년도 발행사 출연금 배분 보고 등

### ✳ 청사 매입과 임대 사업 추진

○...우리 연구재단은 출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2003년 12월 23일 수익용 청사를 매입하고 임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6-9
- 규모 : 대지 549.7 m<sup>2</sup>, 연면적 2,546.10 m<sup>2</sup>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지하 3, 지상 5층)
- 임대 사업 개시 : 2003. 12. 23.

### ✳ 2004년도 연구 사업 추진

○...우리 연구재단은 2004년도 연구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과제와 발행사 및 관련 연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는 총 6개 과제로서 약 8천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연구 과제〉

-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노명완)
- 한국 교과서의 현상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허 강)
- 초·중등 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연구 (조난심)
-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 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곽병선)
-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 수립 방안 연구 (박소영)
- 교과서 게재 시각 자료의 미적 구성 방안 연구(현영호)

### ✳ 2004년도 1 학기 교과용 도서 수증

○...우리 연구재단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 중인 교과용 도서를 발행사로부터 1,633 권을 기증받아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용 도서 기증에 협조해 주신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대한교과서(주), (주)교학사, (주)두산동아, (주)중앙교육연구소,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향우산업(주)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2004년도 발행사 출연금 납입

○...우리 연구재단은 2004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 2004년도 발행사별 출연할 금액을 대한교과서(주) 234,400천 원,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223,150천 원, (주)두산동아 15,750천 원, (주)교학사 12,650천 원,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7,000천 원, (주)지학사 6,050천 원, (주)천재교육 1,000천 원, 합계 5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어려운 여건에도 기금을 계속 출연해 주실 발행사에 감사드립니다.

### ✳ 제2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우리 연구재단은 초·중·고등 학교 재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와 친근한 교과서의 기능과 중요성을 부각시켜 교과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과서 관련 수필을 공모, 시상하기로 하였다.

- 응모 기간 : 2004년 6월 21일(월)~7월 3일(토)
- 입상자 발표 : 2004년 10월 4일(월)

### ✳ 2004년도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

○...우리 연구재단은 교과서 발행사 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과서 출판에 관한 지식 및 기법 등의 습득으로 우리 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과서 출판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시기 : 4월 20일~22일  
5월 18일~20일  
6월 8일~10일
- 연수 시간 : 21 시간(3일)
- 장소 : 재단 강의실

### ✳ 교과서 발행사 편집인 산업 시찰 답사 지원

○...우리 연구재단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협조로 교과서 발행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편집인 등 40명을 대상으로 2004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1박 2일간) 울진 원자력 발전소 답사 등을 지원하여 교과서 편찬 자료 등의 수집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 알림

#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 제한 없음.
- 기 간 : 수시 접수
- 보 상 :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 (우) 158-861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빌딩 4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 (02) 2651-1950(대), Fax : (02) 2651-1954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초·중·고등 학교 학생이 전학이나 교과서 분실 등의 사유로 교과서를 개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 발행사 홈 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개별 구입을 할 때에는 교과 명과 출판사 및 저자(지은이)를 정확히 알아야 구입이 편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교과서 발행사 연락처

구 분	발행사명	전화 번호	홈 페이지	발행 도서 (각 발행사 홈 페이지 참조)
검정 교과서	(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02) 3663-5409~12	www.ktbook.com	* 중·고등 학교 검정 도서 전과목
국정 교과서	대 한 교 과 서 (주)	(041) 861-3183 (ARS)	www.daehane.com	〈제 6 차 교육과정〉 중·고등 학교 국정 도서 〈제 7 차 교육과정〉 * 초등 학교 전과목 * 중학교 : 국어, 생활 국어 (1, 2 학년), 국사, 도덕 1 * 고등 학교 : 공업계, 수산·해운계 전문 교과
	(주) 교 학 사	(02) 701-6371	www.kyohak.co.kr	* 중학교 : 국어, 생활 국어 (3 학년) * 고등 학교 : 실업계 농업 및 상업계 전문 교과
	(주) 두 산 동 아	(02) 3398-2700	www.dong-a.com	*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및 외국어계 전문 교과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02) 865-8225	www.eduaplus.com	* 중 학 교 : 도덕 2, 3 학년 * 고등 학교 : 해양 과학, 관광 영어 및 가사 실업계 전문 교과
	(주) 지 학 사	(02) 330-5302	www.jihak.co.kr	* 고등 학교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생활과 과학, 과학계 전문 교과
	(주) 천 재 교 육	(02) 3282-1773	www.chunjae.co.kr	* 고등 학교 :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체육계 전문 교과
	향 우 산 업 (주)	(02) 790-5947		* 고등 학교 : 교련

## 발행사 직매장

구 분	위 치	전화 번호
(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6 호선 망원역 부근)	(02) 3663-4292
대한교과서(주)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본사 1층 ) (7 호선 논현역 부근)	(02) 541-8247

※ 기타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는 **교육인적자원부 홈 페이지(www.moe.go.kr)** 참고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교육과정·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교과서 전문 연구지

# 『교과서연구』

##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보내실 곳 : (우)158-861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빌딩 4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trf.re.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651-1950으로 문의

# 연구재단 후원 기금 출연 안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민법 제 32조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재단 운영을 위한 후원 기금(출연금)을 모금하오니 출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 이 사 장 한 병 천

❖ 출연 대상 :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

❖ 출연금 접수 : 수시

❖ 출연금의 종류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 출연 참여 방법

○ 현금은 연구재단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

— 계좌 번호 : (농협) 003-01-190747

— 예 금 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소득 공제용 영수증 발급

※ 출연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의거 종합 소득 금액의 100분의 10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 특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은 출연 방법 별도 안내

○ 분할 또는 별도의 납입 기한을 정하여 출연 가능

❖ 출연금 용도

○ 교과서 관련 조사 연구비

○ 「교과서정보관」 건립비

○ 출연자 지정 용도 등

❖ 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

○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출연해 주신 분들의 명단은 동판으로 제작하여 영구 보존하고, 정부 포상을 추천하겠습니다.

○ 건물을 출연하신 경우에는 건물의 이름을 출연자의 성명이나 아호 또는 출연자가 원하는 명칭으로 부서하고 건물에 각인하여 보존하겠습니다.

○ 출연해 주신 분의 명단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간행물에 수록하고 간행물의 무상 구독 특전을 제공하겠습니다.

❖ 연락처

○ 기금 출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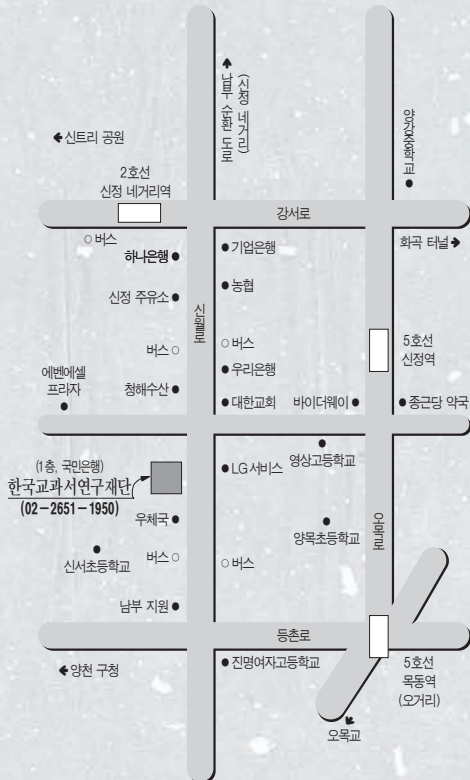
— 주 소 :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 1동 1018-2(세원빌딩 4층)

— 전화 번호 : (02) 2651-1950, e-mail : adm@ktrf.re.kr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 찾아오는 길 ●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0,674	4,994	25,668
일반 자료	1,911	—	1,911
계	22,514	4,994	27,508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등의 교과용 도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기 간	시 간
평 일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토요일	1~12월	09:00~13:00

\* 공휴일 휴관

### 교통편

- 전철
  - 전철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네거리역 각 3번 출구
- 버스
  - 111, 111-1, 129, 303, 325, 326, 460 번